

# 일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89

경기도 문화연구원  
한국사대중 앙 박물관

夫人李氏公妻

曾孫學曾立

# 일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89

경 기 도  
한 국 선 사 문 화 연 구 소  
단 국 대 중 앙 박 물 관

## 차 례

1. 조사경위 .....	9
2. 문화유적 .....	11
가. 선사시대 유적 .....	11
나. 역사시대 유적 .....	12
(1) 옛무덤 .....	12
1) 이철구(李鐵求) 무덤 .....	14
2) 이석구(李石求) 무덤 .....	22
3) 최립(崔立) 무덤 .....	30
4) 방진기(方震堦) 무덤 .....	40
5) 방태여(方泰興) 무덤 .....	51
6) 방우주(方禹疇) 무덤 .....	61
7) 윤타(尹塽) 무덤 .....	69
8) 김신충(金信忠) 무덤 .....	79
9) 김상궁(金尙宮) 무덤 .....	89
10) 김룡(金龍) 무덤 .....	99
11) 정형복(鄭亨復) 무덤 .....	108
12) 정일상(鄭一祥) 무덤 .....	120
13) 청송심씨(靑松沈氏) 무덤 .....	128
(2) 성터 .....	136
3. 유적의 정비와 보존 .....	138

## 지도, 그림, 사진, 탐본 차례

### 〈지도〉

지도 1. 초지지역의 범위와 유적의 위치(1:50,000)	13
지도 2. 이월구 무덤의 위치(1:5,000)	14
지도 3. 이석구 무덤의 위치(1:5,000)	22
지도 4. 회림 무덤의 위치(1:5,000)	30
지도 5. 방전기 무덤의 위치(1:5,000)	40
지도 6. 방대여 무덤의 위치(1:5,000)	51
지도 7. 방우주 무덤의 위치(1:5,000)	61
지도 8. 윤타 무덤의 위치(1:5,000)	69
지도 9. 김선충 무덤의 위치(1:5,000)	79
지도 10. 김상균 무덤의 위치(1:5,000)	89
지도 11. 김용 무덤의 위치(1:5,000)	99
지도 12. 철향복 무덤의 위치(1:5,000)	108
지도 13. 철일상 무덤의 위치(1:5,000)	120
지도 14. 철승림씨 무덤의 위치(1:5,000)	128

### 〈그림〉

그림 1. 이월구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17
그림 2. 이석구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25
그림 3. 회림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33
그림 4. 방전기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43
그림 5. 방대여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53

그림 6. 방우주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63
그림 7. 율타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71
그림 8. 김신출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81
그림 9. 김상궁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91
그림 10. 김용 무덤의 봉분과 석물배치	101
그림 11. 정형복 무덤의 봉분과 석물배치	111
그림 12. 정인삼 무덤의 봉분과 석물	122
그림 13. 정승실씨 무덤의 봉분과 석물배치	130

## 〈사진〉

사진1. 이철구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18
사진2. 이철구 무덤의 비석 앞면과 옆면	19
사진3. 이석구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26
사진4. 이석구 무덤의 비석(위)과 방주석 및 양석(아래)	27
사진5. 최립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34
사진6. 최립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35
사진7. 최립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36
사진8. 최립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37
사진9. 방진기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44
사진10. 방진기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45
사진11. 방진기 무덤의 방주석과 문인석(위), 상석과 향로석(아래)	46
사진12. 방진기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47
사진13. 방진기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48
사진14. 방태여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옆에서 본 모습(아래)	54



사진15. 방태여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55
사진16. 방태여 무덤의 망주석과 문인석(위), 상석과 향로석(아래)	56
사진17. 방태여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57
사진18. 방태여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58
사진19. 방우주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64
사진20. 방우주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65
사진21. 방우주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상석과 혼유석(아래)	66
사진22. 윤타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72
사진23. 윤타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73
사진24. 윤타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상석과 혼유석(아래)	74
사진25. 윤타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75
사진26. 김신충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82
사진27. 김신충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83
사진28. 김신충 무덤의 문인석과 망주석(위), 상석과 향로석(아래)	84
사진29. 김신충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85
사진30. 김신충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86
사진31. 김상궁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92
사진32. 김상궁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93
사진33. 김상궁 무덤의 문인석과 망주석(위), 상석과 향로석(아래)	94
사진34. 김상궁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95
사진35. 김상궁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96
사진36. 김용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102
사진37. 김용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103
사진38. 김용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104

사진39. 김용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	105
사진40. 정형복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	112
사진41. 정형복 묘갈의 앞면 .....	113
사진42. 정형복 묘갈의 옆면 .....	113
사진43. 정형복 무덤의 비석 앞면과 옆면 .....	114
사진44. 정형복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망주석과 양석(아래) .....	115
사진45. 정일상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	123
사진46. 정일상 무덤의 비석 앞면과 옆면 .....	124
사진47. 정일상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상석과 혼유석(아래) .....	125
사진48. 청송심씨 무덤의 모습. 앞에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	131
사진49. 청송심씨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	132
사진50. 청송심씨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상석과 혼유석(아래) .....	133
사진51. 멀리에서 본 성터의 모습 .....	136

## 〈참본〉

참본 1. 이철구 무덤의 비석 앞면 .....	20
참본 2. 이철구 무덤의 비석 뒷면 .....	21
참본 3. 이석구 무덤의 비석 앞면 .....	28
참본 4. 이석구 무덤의 비석 뒷면 .....	29
참본 5. 최립 무덤의 비석 앞면 .....	38
참본 6. 최립 무덤의 비석 뒷면 .....	39
참본 7. 방진기 무덤의 비석 앞면 .....	49
참본 8. 방진기 무덤의 비석 뒷면 .....	50
참본 9. 방태여 무덤의 비석 앞면 .....	59

답본 10. 방내어 무덤의 비석 뒷면과 앞면	60
답본 11. 방우주 무덤의 비석 앞면	67
답본 12. 방우주 무덤의 비석 뒷면과 앞면	68
답본 13. 윤타 무덤의 비석 앞면	76
답본 14. 윤타 무덤의 비석 뒷면과 앞면	77
답본 15. 윤타 무덤의 목줄 물고기 머리 조각	78
답본 16. 김실충 무덤의 비석 앞면	87
답본 17. 김실충 무덤의 비석 뒷면	88
답본 18. 김상궁 무덤의 비석 앞면	97
답본 19. 김상궁 무덤의 비석 뒷면	98
답본 20. 김흥 무덤의 비석 앞면	106
답본 21. 김흥 무덤의 비석 뒷면	107
답본 22. 정형복 무덤의 신도비 표갈 1, 2면	116
답본 23. 정형복 무덤의 신도비 표갈 3, 4면	117
답본 24. 정형복 무덤의 비석 앞면	118
답본 25. 정형복 무덤의 비석 뒷면과 옆면	119
답본 26. 정일상 무덤의 비석 앞면	126
답본 27. 정일상 무덤의 비석 뒷면과 옆면	127
답본 28. 정송침씨 무덤의 비석 앞면	134
답본 29. 정송침씨 무덤의 비석 뒷면	135



# 일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손보기 문대현 한창균 신숙정

조태섭 홍현선 공수진 양현주

## 1. 조사경위

일산지구 신도시 건설지역은 일산리(9~13리), 주엽리, 마두리(1~4리), 장항리, 백석리(1~4리)와 광포면의 대화리를 포함하고 있으며(지도 1), 여기에 들어가는 지역의 총면적은 460만평에 이른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기름진 평야지대와 낮은 언덕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정발산(正鉢山)으로서 해발 86.5m이다.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유역 일대에는 해발 5~7m의 넓은 들이 펼쳐져 있으며, 이곳의 논에서는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일산 언저리의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1989년 8월 말부터 11월 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신도시개발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었기 때문에 조사활동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물려받았던 농민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그러한 반발은 더욱 거세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조사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지역에 따라서는 길을 막아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한 곳도 제법 있었다.

여러가지 어려운 편지 자청으로 인하여 이번에 실시된 문화유적의 지표조사작업은 일선리, 마두리, 백서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밀산을 주엽리와 장항리, 송포면 대화리)에서의 지표조사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었다.

일산지역의 문화유적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 조사단장 손보기(한국전사문화연구소장)
- 자문위원 김원봉(한림대학교 교수)  
장경호(문화재연구소장)
- 선사분야
  - 책임조사원 손보기(한국전사문화연구소장)
  - 조사원 신숙경(한국전사문화연구소 연구원)
  - 조태섭(한국전사문화연구소 연구원)
  - 홍현선(한국전사문화연구소 연구원)
- 역사분야
  - 책임조사원 윤내현(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장)
  - 조사원 한장균(단국대학교 교수)
  - 양현주(단국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공수진(한국전사문화연구소 연구원)

끝으로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이번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에는 경기도청의 강대목 문화공보담당관, 고양군청 문화공보실과 송포면사무소 관계직원을 비롯한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이리차래의 조사작업을 하는 동안 단국대학교 사학과 재학생 여러분들의 도움도 컸다. 비문정리에는 신동현, 실측 및 평면도 작성에는 박성상과 손지연, 탑문정리에는 권용욱, 성원경, 박준범, 최상아, 서봉수, 김동관, 류수진, 고효연, 최길희, 임형미, 김흥기, 차은주 등이 수고하였다.

## 2. 문화유적

### 가. 선사시대 유적

한강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문화가 발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북된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은 상류로부터 하류에 걸치는 여러 곳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른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유적들은 옛부터 이 강의 언저리가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음을 알려준다.

새로운 도시로 개발되는 일산읍 지역은 한강의 하류지방으로서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석리에서는 선사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 와 석기가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주엽리쪽의 토탄층에서는 이른 시기의 농사 흔적을 보여주는 곡료와 함께 유물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 지역 주민들의 저항으로 유적의 현지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짧은 기간의 지표조사에서 시간만 여러번 낭비하고 말았다. 선사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이 신도시 개발지역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벽제읍 문봉리와 원당읍 신원리 등 몇곳에서 고인돌이 확인된 바 있어, 앞으로의 집필조사에 따라 새로운 유적의 발견 가능성은 높다. 특히 대화4리의 성저마을에 있는 토탄층은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토탄층은 지금의 논바닥보다 80~100cm 아래에 있다.

논으로 개간된 지역에서 한강의 수위 및 해안선 변화에 관한 증거가 찾아질 수 있도록 몇곳의 지층을 시굴하여, 한강 유역의 제4기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나. 역사시대 유적

### (1) 옛무덤

신도시가 세워지는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적으로는 옛무덤을 들 수 있다. 일산 지역은 개발률이 낮아 산초작터로는 매우 알맞은 곳이므로 들 가운데 낮은 산에는 2기 이상의 옛무덤이 배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여러 유형의 무덤 가운데, 이 보고서에서는 비석이 남아 있는 무덤만을 다루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모두 13기로 지도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어려 곳에 있는 무덤 중에서 이 글에서는 백석 4리의 어천구·이석구 무덤, 백석3리의 최립 무덤, 백석2리의 윤타 무덤, 백석1리의 방진기·방태덕·방우주 무덤, 바두3리의 김신중·김상궁·김윤 무덤, 장현2리의 정형복·정일상·정송실씨 무덤을 다루었다. 그런데 조사된 지역에 머무르는 각 집안 나름대로 독특하게 무덤과 석물이 갖추어져 있어 조선시대 묘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려시대의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찾아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무덤의 석물 배치방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덤의 앞쪽에서 바라보는 관찰자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1) 이철구(李鐵求, 1787-1836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4리(산43-3임야)

능곡→일산 방향의 지방도(398번)를 따라 백석4리에 이르면, 오른쪽으로 해발 41.7m의 야산이 나타난다.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난 좁은 산길로 3분쯤 올라가는 지점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얼마되지 않은 언덕 뒷부분에 무덤이 자리잡고 있다. 무덤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축좌미향(丑坐未向)으로 쓰여졌다.

봉분은 정부인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의 합장형식이며, 이 봉분을 에워싸고 사설(莎城)이 둘러쳐 있다. 이 무덤은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망주



지도 2. 이철구 무덤의 위치(1:5,000)

석(鎔柱石)을 갖추고 있으며, 상석의 앞쪽 밑으로는 사상에 이르는 곳까지 한줄의  
덧돌이 놓여져 있다. 상석받침은 2개의 복돌과 2개의 전방석으로 이루어졌고, 그  
밑으로는 밑받침돌[礎臺石]이 놓여져 있었다. 한편 상석의 오른쪽 바로 앞에는 준석  
(樽石)으로 생략되는 네모난 돌(50×32cm)이 마련되어 있다. 무덤을 꾸미고 있는  
이러 석물(石物) 중에서 혼유석, 상석, 복돌, 향로석, 망주석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다. 상석의 왼쪽 옆면에 새겨져 있는 기록은 이들 석물이 6대 종손 이정태(李廷泰)  
씨에 의하여 1987년 8월 20일에 설치되었음을 알려준다.

무덤의 왼쪽 아래쪽 좁은 길가에 있는 비석은 비강[加槽石], 비몸[碑身], 받침돌  
[龜臺石], 밑받침돌(礎臺石)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비석은 1924년에 세워졌었으나  
그후 무너진 상태로 땅속에 바쳐 있다가 근래에 들어와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고 한  
다. 비강(가로 101cm, 세로 73cm, 높이 50cm)은 팔작집의 지붕모양으로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표현되어 있으며, 내귀의 추녀같은 하늘을 향하여 들린 모습을  
하고 있다. 비몸(높이 137cm, 너비 54.5cm, 두께 31cm)의 앞면에는 4행 10자, 그 뒷면  
에는 15행 56자가 새겨져 있다. 비받침돌(가로 107cm, 세로 75cm, 높이 53cm)의  
모서리를 날카롭지 않게 하였다.

무덤의 주인인 이철구는 조선 대종의 둘째아들인 효녕대군 보(褹)의 손으로 그의  
증조는 중경(重庚), 조는 장오(章吾), 부는 득재(得濟)이다. 모는 양주조씨(楊州趙氏)  
(정규(正誼)의 따님과 동북오씨(同福吳氏) 대복(大復)의 따님이 있는데, 이철구는  
동북오씨의 초생이다. 비문에 나타난 이철구의 해적이[年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마년(1787, 정조 52년) 태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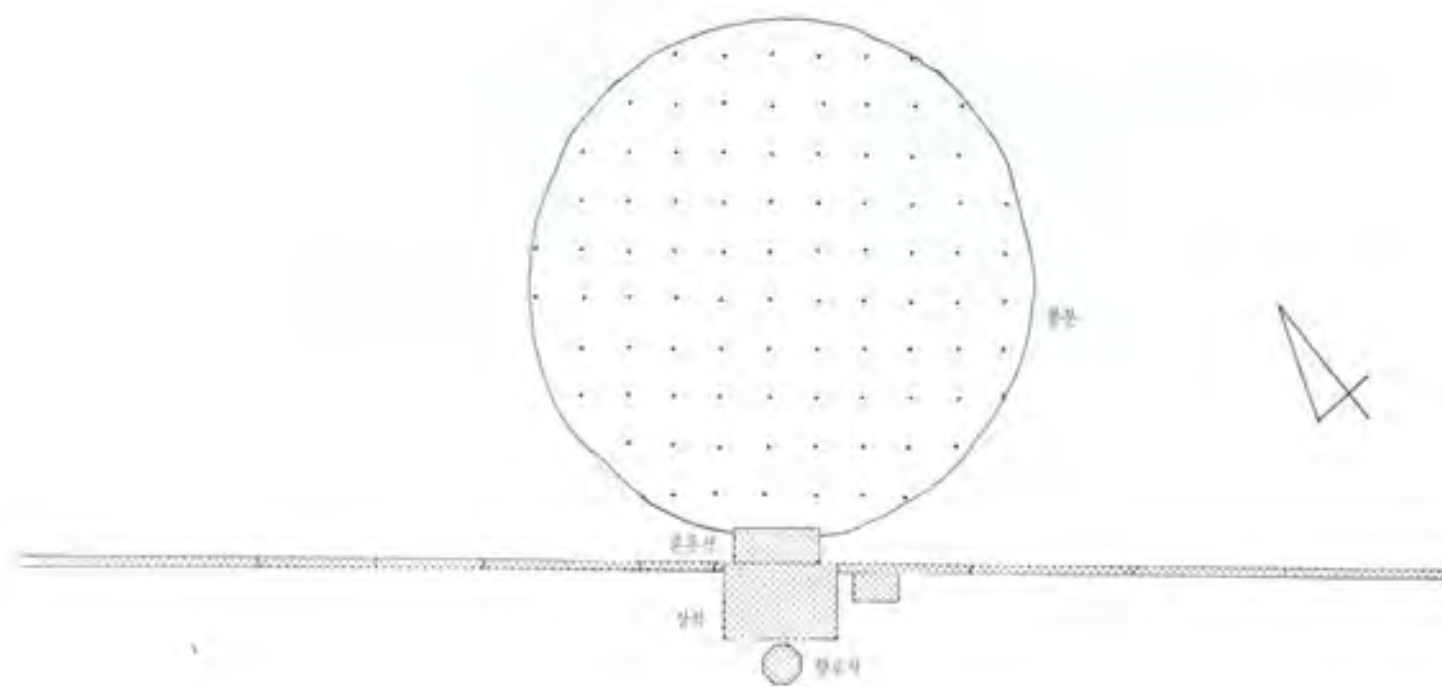
임술년(1802, 순조 2년) 파평윤씨를 부인으로 맞음.

병인년(1806, 순조 6년) 별천으로 입시하고 사복시 내술이 되다.

정묘년(1807, 순조 7년) 전시에 급제하고 휘악이 되다.

무자년(1808, 순조 8년) 후임위 참, 위원군수

임진년(1812, 순조 12년) 천라각주사  
 갑술년(1814, 순조 14년) 수선간과에 오르다.  
 병자년(1816, 순조 16년) 천라명사  
 기묘년(1819, 순조 19년) 철주동사  
 임오년(1822, 순조 22년) 회령부사 카현대부 교동주사가 되다.  
 갑진년(1824, 순조 24년) 금위령 중군 북명사  
 병술년(1826, 순조 26년) 도총부 부총관, 훈원도감 도정, 포도대청  
 정해년(1827, 순조 27년) 금위령 대정  
 부자년(1828, 순조 28년) 평단명사  
 정인년(1830, 순조 30년) 양주목사  
 천묘년(1831, 순조 31년) 금군 별장, 승심원 좌승지  
 임진년(1832, 순조 32년) 금위대정  
 계사년(1833, 순조 33년) 형조참판  
 갑오년(1834, 순조 34년) 의금부 동의금, 한성부 부윤  
 을미년(1835, 헌종 1년) 훈원원 겸 도정  
 병신년(1836, 헌종 2년) 지훈원원사, 돌아가다(50세), 양주 누원에 붙임.  
 정유년(1837, 헌종 3년) 고양군 백석리에 옮겨온다.



방주석

방주석

0 2.5m



사진 1. 이철구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2. 이철구 무덤의 비석 앞면과 옆면

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  
兵曹判書行嘉善大夫刑  
曹參判完山李公鐵求墓  
配貞夫人坡平尹氏祔右

拓本 1. 이철구 무덤의 비석 앞면



2) 이석구(李石求, 1775~1862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4리(산43-3임야)

이 무덤은 이철구 무덤의 동쪽 산등성이 너머에 있다. 그리고 무덤으로부터 약 10m쯤 아래쪽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 무덤은 서-남방향의 유좌묘향(西坐頭向)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이철구 무덤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봉분은 전부인 청송심씨(靑松沈氏)의 합장으로 되어 있고 이를 에워싸고 있는 사성은 잘 다듬어졌다. 혼유석은 없었고, 삼석과 함보석 그리고 댓돌이 놓여져 있다. 무덤의 양쪽에는 망주석을 비롯하여 양석(羊石, 숫양)이 하나씩 있으며, 문인석



지도 3. 이석구 무덤의 위치(1:5,000)

(文人石)은 보이지 않는다. 방주석은 머리부분[圓首]의 불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운두(雲頭)와 엄의(嚴衣) 같은 것은 조각되어 있지 않다. 상석받침으로는 앞쪽에 2개의 북돌이 있으며, 뒤쪽에 결방석이 하나 붙어있다. 이들 석물 가운데 상석, 북돌, 향로석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무덤의 비석은 1928년 만들어 세워진 것으로 그 생김새는 이철구의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비각(가로 97.5cm, 세로 74cm, 높이 51cm), 비몸(높이 150.5cm, 너비 55cm, 두께 28.5cm), 비받침(가로 105cm, 세로 47cm)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밑받침돌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땅 속에 묻혀졌을 가능성도 있다. 비몸의 앞면에는 4행 10자, 그 옆면에는 15행 56자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석구의 부는 득재이고 모는 양주조씨 김규의 따님이다. 비문에 들어 있는 이석구의 해적이는 다음과 같다.

을미년(1775, 영조 51년) 태어나다.

경술년(1790, 정조 14년) 청송심씨(靑松沈氏) 금(鑑)의 따님과 혼인하다.

신해년(1791, 정조 15년) 장용위

임자년(1792, 정조 16년) 천전관

경인년(1794, 정조 18년) 청시 전시에 장원, 사옹원 주부

을묘년(1795, 정조 19년) 김 내승

병진년(1796, 정조 20년) 도총부 경역, 훈련원부장, 훈련원경

경술년(1800, 정조 24년) 사헌부 감찰

임술년(1802, 순조 2년) 신허첨사(부임하지 않음)

계해년(1803, 순조 3년) 김 내승

갑자년(1804, 순조 4년) 경흥부사

병인년(1806, 순조 6년) 장길부사

무진년(1808, 순조 8년) 영종첨사



기사년(1800, 순조 9년) 종정수사  
 경오년(1810, 순조 10년) 권라병사(부임하지 않음)  
 신미년(1811, 순조 11년) 경기수사 가선대부  
 임신년(1812, 순조 12년) 어영청 중군, 도총부 부총판  
 해유년(1813, 순조 13년) 담평사  
 갑술년(1814, 순조 14년) 도감중군  
 을해년(1815, 순조 15년) 금군별장, 포도대장, 황해병사  
 갑신년(1824, 순조 24년) 금위영 중군  
 을유년(1825, 순조 25년) 봉제사  
 정해년(1827, 순조 27년) 총융사  
 무자년(1828, 순조 28년) 의금부 통의감  
 신묘년(1831, 순조 31년) 돌이가다(57살), 양주 부원에 불행.  
 임술년(1862, 철종 13년) 고양군 매직리에 옮겨묻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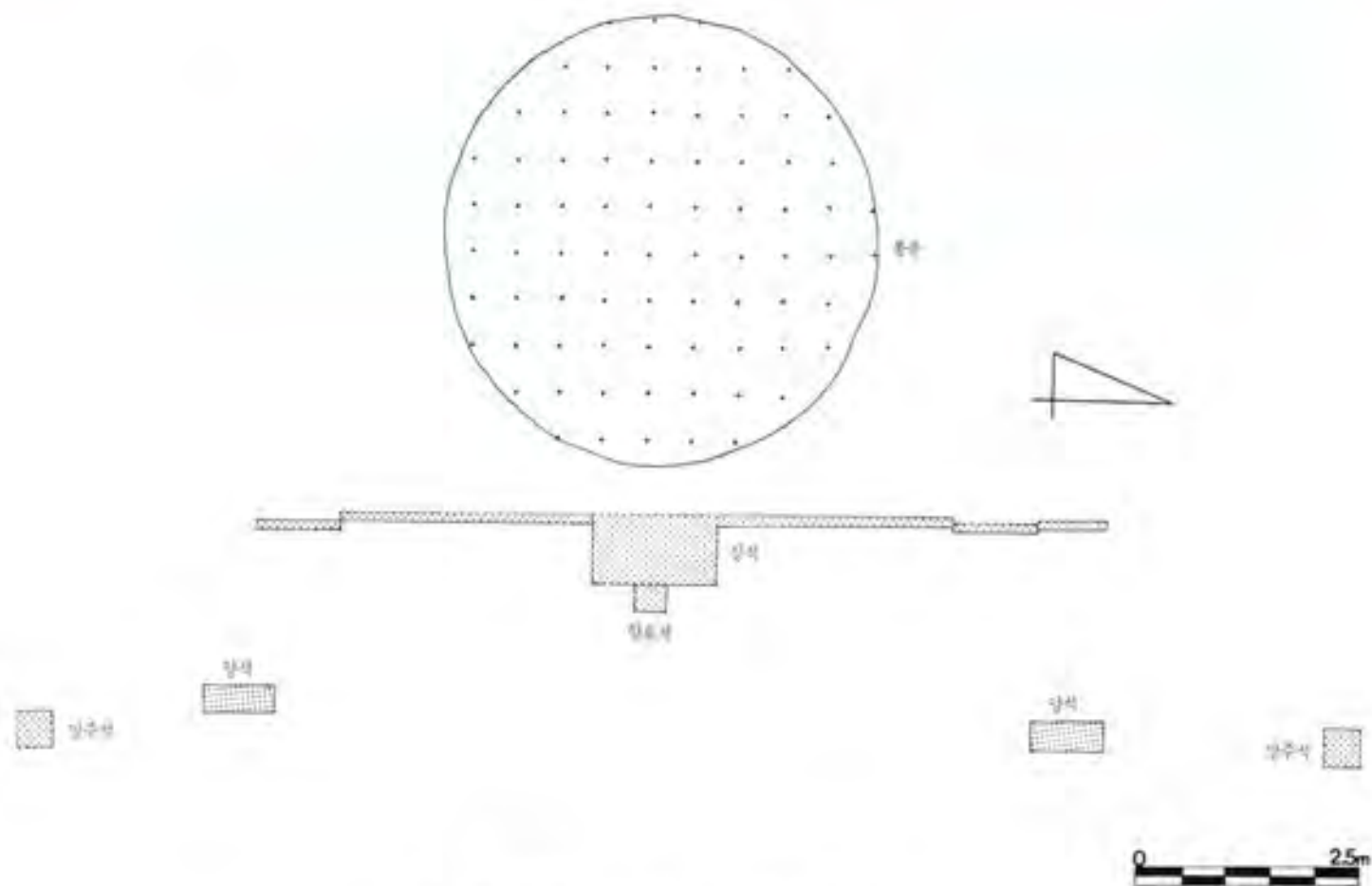


그림 2. 이석구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사진3. 이석구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4. 이석구 무덤의 비석과 향주석 및 양석

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  
兵曹判書行嘉善大夫  
叅戎使完山李公石求之墓  
配貞夫人青松沈氏祔左

답본 3. 이석구 무덤의 비석 앞면





### 3) 최립(崔崐, 1539~1612년) 무덤

곳=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3리(삼39-5읍)

백석3리에 있는 정미소 앞길 건너편의 좁은 길을 따라가면 곧 흰부리의 무덤과 문인석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모두 5개의 무덤자리가 있다. 각 무덤에는 삼석과 함께 흰색의 문인석이 남아 있고, 향로석과 비석 자리가 보이는 곳도 있다. 그 가운데 현재 3리의 무덤에 비석이 세워졌음을 알게 한다. 하나는 비반침돌만 남아 있고, 다른 하나는 비몸의 표면이 풍화를 심하게 입어 그곳에 새겨졌던 글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다음의 최립의 비명(碑銘)은 잘 남아 있다. 비몸에 들어 있는 간자로 보면 최립의



지도 4. 최립 무덤의 위치(1:5,000)

비석은 1715년(숙종 41)에 세워진 것으로 가늠된다.

최립의 무덤에는 2개의 봉분이 있다. 최립과 애안아씨(體安李氏)인 부인이 함께 묻혀 있고, 오른쪽 바로 옆에 작은집[嗣室]이었던 한산우씨(韓山禹氏)의 무덤이 다른 봉분 아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석이 양개 붙려져 있고, 각각의 봉분 앞에는 상석과 이를 받치고 있는 2개의 새들만이 놓여졌으며, 향로석은 없었다. 상석의 크기는 합장무덤의 것이 139×87cm, 다른 무덤의 것이 124×75cm이었다. 최립의 무덤은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된다.

무덤의 왼쪽에 세워진 비석(높이 111cm, 너비 52.5cm, 두께 16cm)은 묘갈(墓碣)로서 비문의 글은 최석형(崔錫鼎, 인조 24—숙종 41년, 1646~1715년)이 지었고, 최창대(崔昌大)가 썼다. 비면침술(가로 82cm, 세로 51cm) 둘레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다. 비석의 표제(表題)는 무덤의 바깥쪽을 읍기(諡記)는 상석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2개의 문인석은 매우 닮았으나 왼쪽 것이 오른쪽보다 보존상태가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런데 조각의 솜씨나 새겨진 모습의 차이로 보아 두 문인석의 제작년대는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의 하림새로 얼굴의 높이(약 26cm)보다 관모의 높이(약 28cm)가 더 크며 이러한 특징은 주위에 있는 문인석에서도 공통으로 관찰된다. 금양관(金梁冠)의 주름(梁)은 많이 앞아서 그 수를 정확히 세어보기 어렵다. 흉(胸)은 길고 좁으며, 그 위쪽에 비관을 고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옷깃의 앞쪽부분은 조각되지 않았으나 고대깃이 공개 나타난다. 허리에는 끈고 무바하며, 땀병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띠드리개(佩扣)가 늘어뜨려져 있다. 꼬의 앞과 뒷 아래단은 연속된 두개의 반원모양으로 마감되었고, 반원 안에 싯발 앞쪽부분이 하나씩 표현되어 있다.

최립은 글에 뛰어남 사람으로서 임진왜란 당시 외교문사를 잘 지었으며, 명나라에도 자주 다녀왔다. 한편 서예에도 능하였던 그는 저술로서 갈매집(簡菴集), 주역본의 구결부설(周禮本義口訣附設), 한사열전초(漢史列傳抄), 십가근체(十家近體) 등은

남겼다. 화첩의 주요한 제작이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해년(1539, 중종 34년) 현사 자일(自臨)의 아들로 태어나다.

윤30년(1555, 명종 10년) 진사가 됨.

삼유년(1561, 명종 16년) 직년문과에 장원 삼배

정축년(1577, 선조 10년) 주참사의 직질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옴.

신사년(1581, 선조 14년) 재령군수, 직질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옴.

갑신년(1584, 선조 17년) 공공문사 시원인 이문정시에 장원

병술년(1586, 선조 19년) 가철대부

임인년(1592, 선조 25년) 공주목사

계사년(1593, 선조 26년) 전주부윤, 승문원제조, 주참사와 직질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옴.

갑9년(1594, 선조 27년) 주참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옴.

을미년(1595, 선조 28년) 직참사

병오년(1596, 선조 29년) 동국충주부사

정미년(1597, 선조 30년) 길음부사

임자년(1612, 광해 4년) 백성을 떠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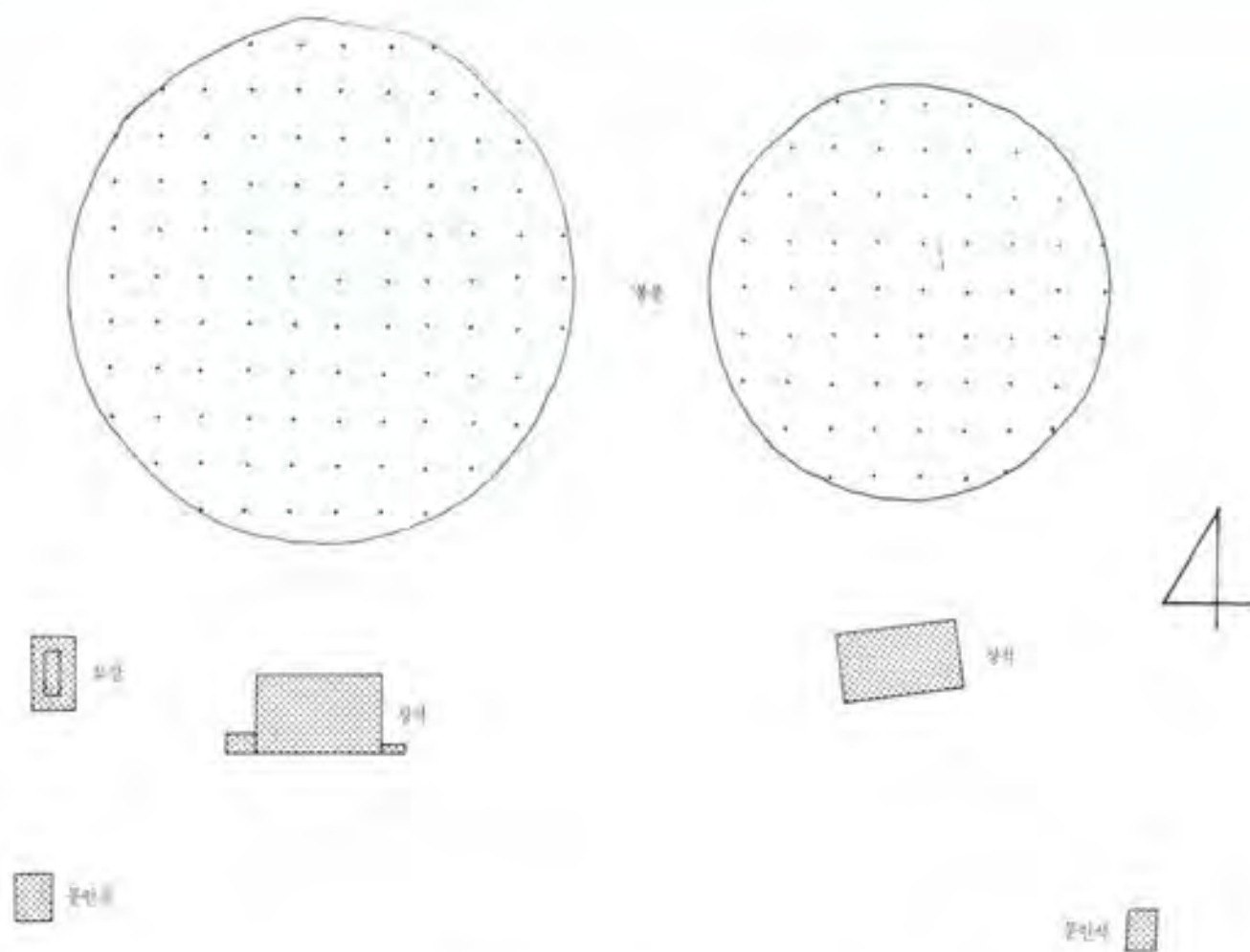


그림 3. 최립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0 25m





사진5. 최립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과 뒤에서 본 모습



사진6. 최립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사진7. 칠립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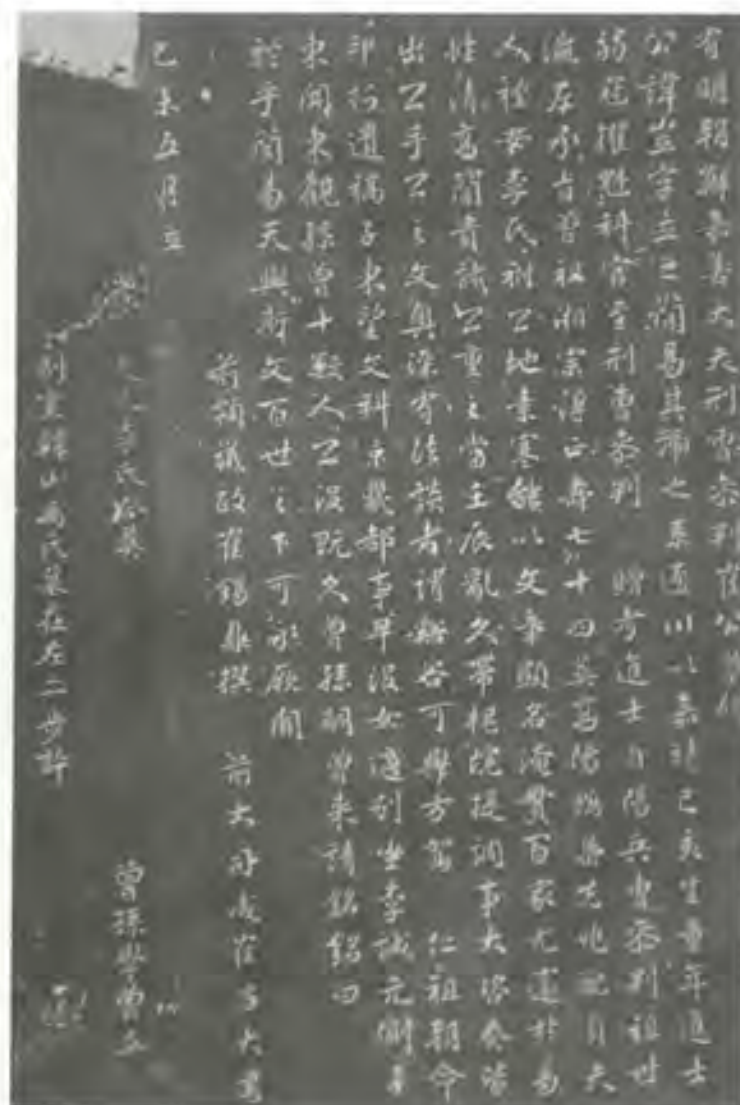
사진8. 회림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탑본 5. 최립 무덤의 비석 앞면





답본 6. 칙립 무덤의 비석 뒷면과 옆면

#### 4) 방천기(方泉寺, 1655~1729년) 무덤

〔근〕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1리(11~4일야)

이 일대를 중심으로 방씨종중의 무덤이 여러 곳에 자리잡고 있다. 남쪽에 있는 여러 무덤과 전을 매, 이 무덤의 규모가 가질 크며, 무덤쓰기와 관련된 석물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 석물을 갖춘 흙바닥의 좋은 편으로 여겨진다.

북동—남서방향의 간좌군청(間坐軍廳)으로 들어앉은 이 방씨 무덤에는 정월무인(正月無人) 감습이씨(甘肅伊氏)가 합장되어 있다. 석물로는 비석은 비롯하여 상아,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이 있고, 양서의 양쪽에 있는 몇몇은 명주석이 세워진 곳까지



지도 5 방천기 무덤의 위치(1:5,000)

높아졌으며, 관직한 사설이 봉분을 해위하고 있다.

무덤의 오른쪽에 세워진 표갈의 비문 크기는 높이 127cm, 너비 55cm, 두께 16.5cm이다. 비석의 표재는 상석쪽 그리고 유가는 무덤의 가장자리쪽을 향하고 있어 좌측 무덤의 경우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비문의 글은 앞쪽으로 3행11자, 뒤쪽으로 15행42자가 새겨져 있다. 한편 비문받침(140×91cm)의 전측면은 구룡무늬를 새겼다. 이 비석은 영조 36년(1760)에 세워졌다.

상석(가로 140cm, 세로 91cm, 두께 45.5cm)과 상석받침은 그 크기가 같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볼표면의 경화 정도로 보아 상석은 상석받침보다 후대에 다시 만들어 놓여진 것으로 가늠된다. 향토석에는 향토의 자세한 부분까지도 조각되었으며, 양주석에는 풍부한 양의가 모두 표현되었다.

관관조목 좌단의 문헌석은 훌륭한 솜씨로 조각되었다. 더욱이 압질도 좋아 만들어져 당시의 모습을 거의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다. 관모에는 4개의 세모주름이 파여져 있고, 관모와 얼굴의 높이 비율은 1:1을 유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얼굴앞면은 관모보다 볼쪽 앞으로 튀어나왔고, 턱같이 흉에 기댄 모습을 하고 있다. 흉은 가운데부분이 오목하며, 갈부분은 모두 양쪽으로 조금 벌어져 모습을 지니고 있다. 흉을 잡은 손의 모양은 오른손이 왼손을 가볍게 덮고 있는 형상이다. 보의 앞쪽 아래단은 늘어져 있으나 실이 조각된 양쪽의 상부분에 이르러서는 위로 치켜올라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뒷면의 고대깃은 뾰족한 봉우더 모양이며, 거드랑이 아래로는 무가 조각되었다. 허리띠에는 3개의 띠돈이 달려 있고, 각 띠돈에는 4개의 꽃잎이 새겨졌다. 후수의 조각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띠드래개의 아래쪽에는 술이 하나씩 달려 있다.

온양방석(溫陽方石)의 손인 방진기의 증조는 원(賢), 조는 증엄(承嚴), 부는 이원(以源)이며 모는 김해김씨(金海金氏) 근행(謹行)의 따님이다. 비문에 있는 방진기의 해직이름 보면 다음과 같다.

을미년(1655, 효종 6년) 태어나다.

갑자년(1684, 숙종 10년) 막원에 뽑히다.

을유년(1705, 숙종 31년) 봉개원 인의, 경안도 참방

신묘년(1711, 숙종 37년) 통정승후합산

계사년(1713, 숙종 39년) 시학

갑오년(1714, 숙종 40년) 승정대부 지중추

부신년(1728, 영조 4년) 승록대부 수명 파천천감

기유년(1729, 영조 5년) 돌아가다(75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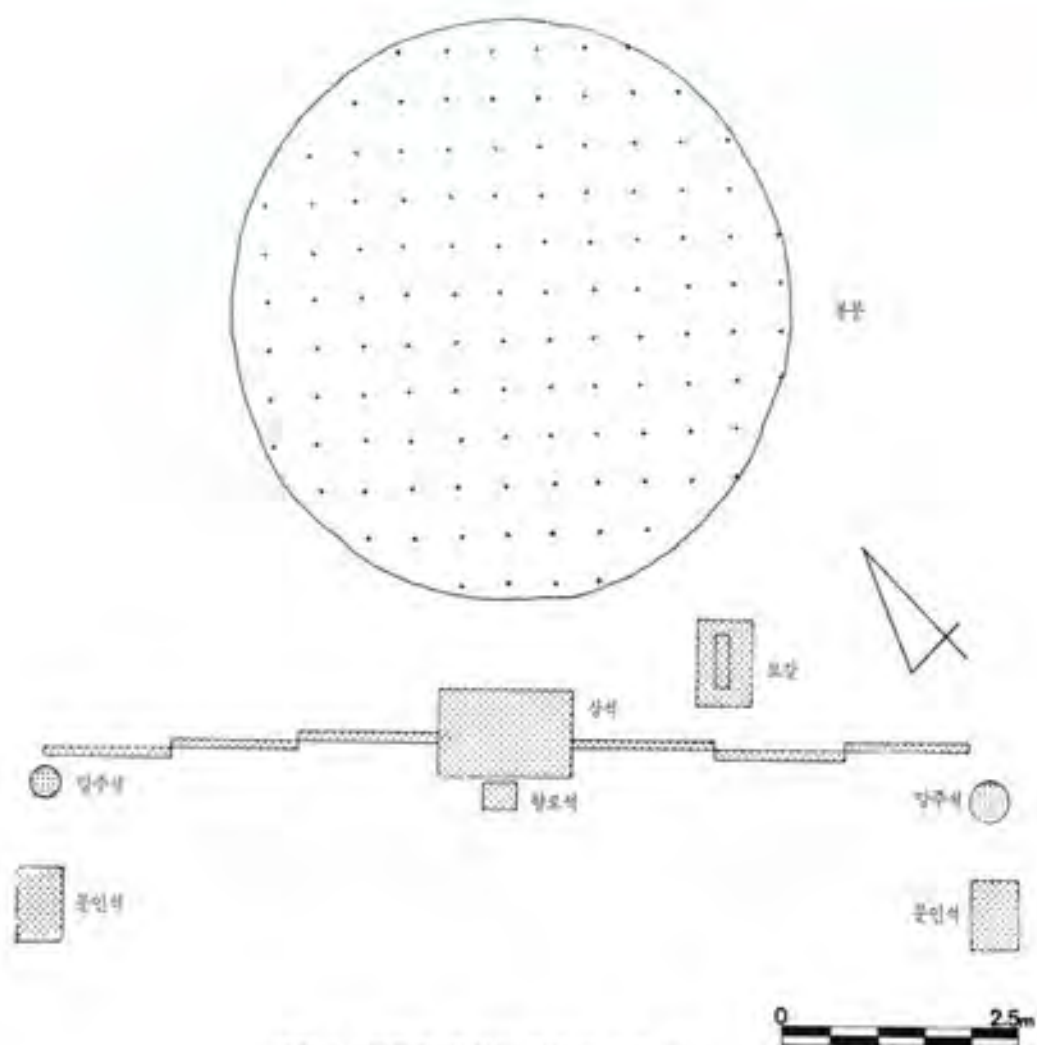


그림 4. 방진기 무덤의 분분과 석물 배치





사진9. 방진기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본 모습(아래)



사진 10. 방진기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사진 11. 방진기 무덤의 망주석과 문인석(위), 상석과 향로석(아래)



사진 12. 방진기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사진 13. 방진기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朝鮮贈判中樞府事行果  
川縣監方公諱震夔之墓  
贈貞敬夫人江陰李氏祔左

답본 7. 방진기 무덤의 비석 앞면



탑본 8. 방진기 무덤의 비석 뒷면

5) 밭태어(万泰兒, 1705~1778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1리(11-4읍야)

방진기 무덤의 바로 아래쪽에 자리한 까닭에 방태어 무덤을 별도로 예외시키고 있는 사성이 없다. 방진기의 무덤에서와 같이 여러 석물이 고루 갖추어져 있으나 그 규모는 방진기 무덤보다 작다. 방태어의 무덤도 북동-남서방향인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자리를 잡았다. 봉분은 첫째 정부인 밀양변씨(密陽下氏)와 둘째 정부인 해주씨(海州崔氏)와 봉토를 달리하는 합장형식이다.

묘갈의 위치와 방향은 방진기의 무덤과 같게 나타난다. 비움의 크기는 높이 126



지도 6. 밭태어 무덤의 위치(1:5,000)

cm. 너비 59.5cm, 두께 27cm이며, 3면에 걸쳐 글이 새겨져 있다. 정조 18년(1754년, 갑인년)에 새워진 이 비석의 비문은 앞면에 4행10자, 옆면에 8행45자, 뒷면에 16행46자가 들어있다. 비몸판침(100×67.5cm)에는 무늬가 없다.

상석(가로 141cm, 세로 84cm, 두께 46cm)과 상석판침 그리고 향로석의 모양은 방진기의 것과 매우 닮았다. 그러나 방주석의 경우에는 어떠한 무늬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방주석은 분만석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 무덤의 분만석은 방진기의 것보다 규모가 작다. 관모의 높이(14.5cm)는 얼굴의 높이(17.5cm)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얼굴은 관모보다 상당히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매우 선명한 표정을 짓고 있다. 턱끝은 볼과 조금 떨어져 있는 모양이고, 한손이 오른손을 삼키며 입을 잡고 있다. 몸의 일부분 양쪽 모서리는 모가 난 형태이지만 그 뒷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꼬의 앞쪽 아랫단은 직선으로 처리되었다. 반면에 고대짚은 위쪽을 향하여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방진기의 손자로서 세검(世鑑)의 아들이었던 태여의 해직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을유년(1705, 숙종 31년) 진기의 손자로서 세검(世鑑)의 아들로 태어나다.

갑진년(1724, 경술 4년) 약원에 묻다.

무신년(1728, 영조 4년) 원종공신

계해년(1743, 영조 19년) 통정대부

병인년(1746, 영조 22년) 가선대부

신미년(1751, 영조 27년) 승록대부

무술년(1778, 정조 2년) 율이카타(74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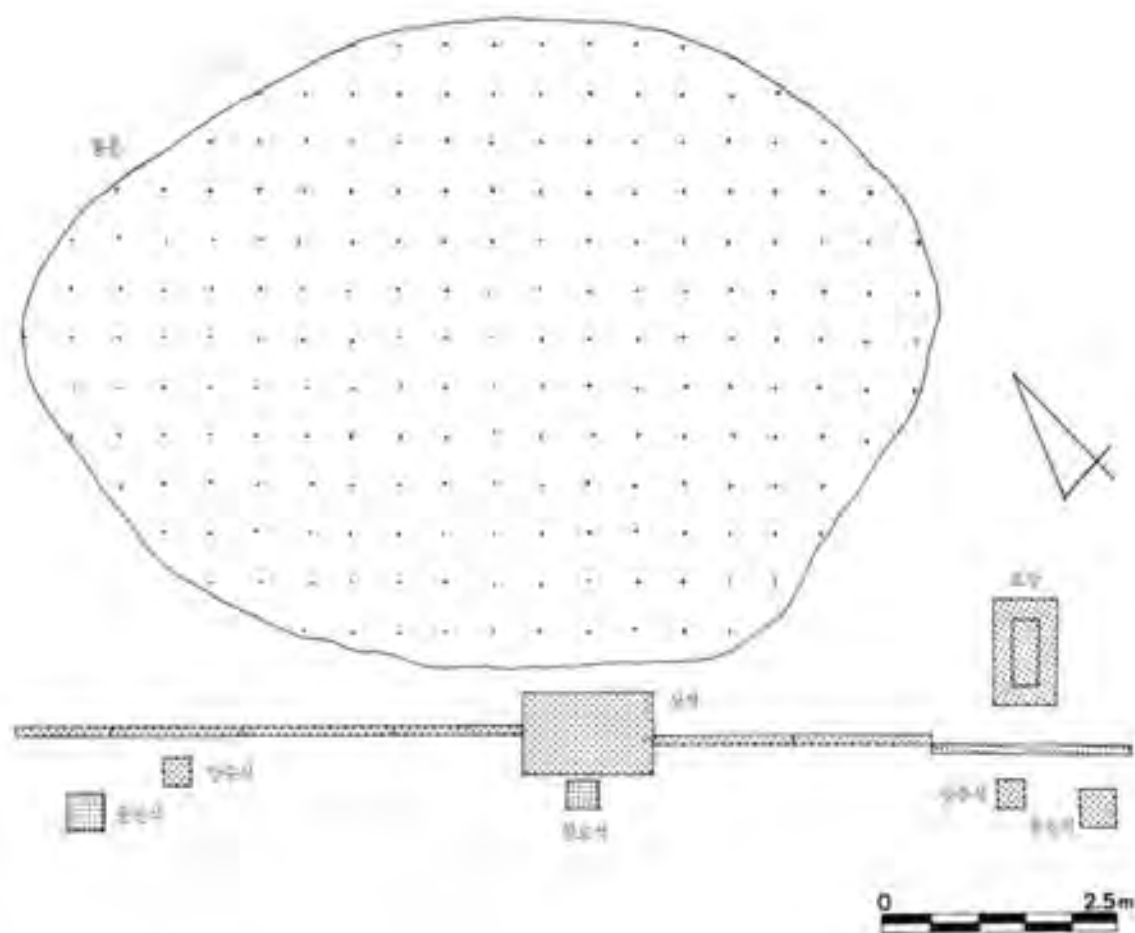


그림 5. 망태여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사진 14. 방태여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옆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 15. 방태여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사진 16. 방태여 부인의 망주석과 문안석(위), 상석과 향로석(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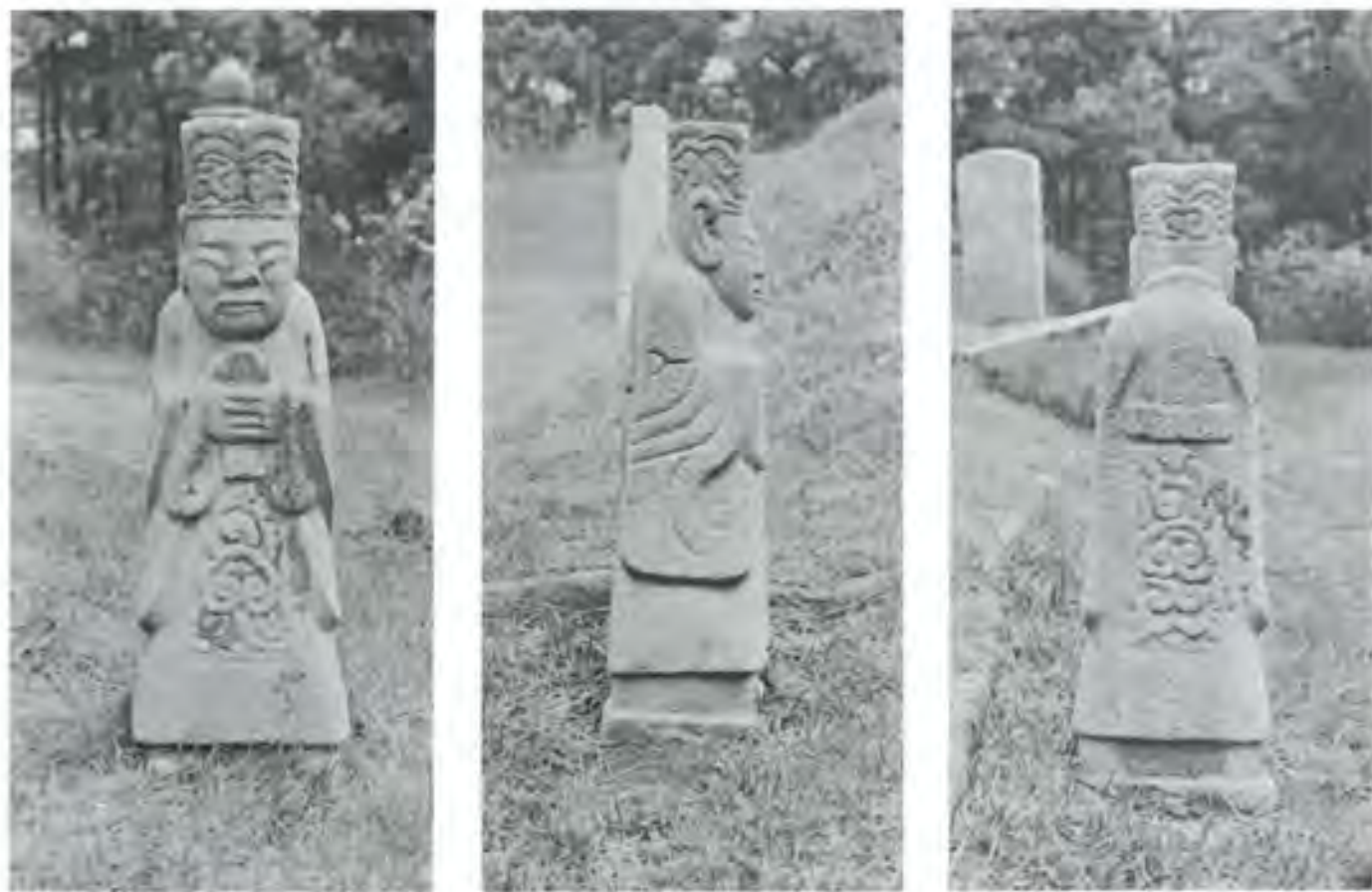


사진 17. 방태여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사진 18. 방태여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朝鮮國崇祿大夫行知中  
樞府事方公泰輿之墓  
贈貞夫人密陽卞氏附左  
貞夫人海州崔氏附左

답본 9. 방태여 무덤의 비석 앞면



## 6) 방우주(方禹疇, 1770~1815년) 무덤

곳 :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1리(11-4일아)

이 무덤은 방진기의 무덤으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약 10km를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무덤의 전체 규모는 방진기와 방태이의 것들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집부인 천인이씨(天安李氏)가 참장된 이 무덤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인 개좌절합(癸坐丁向)으로 들어앉았다.

방우주의 무덤은 혼유석, 상석, 향로석, 비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설 양쪽으로 뿔뿔이 벌어져 있을 뿐이다.

방진기나 방태이 무덤의 경우에서의 길이 비석(높이 104cm, 너비 40.5cm, 두께 18.5cm)



지도 7. 방우주 무덤의 위치(1:5,000)

은 무늬의 오른쪽에 세워져 있었고, 표제는 삼석쪽 그리고 윗기는 사설쪽을 향하였다. 머문의 글은 3면에 걸쳐 새겨져 있고, 앞면에는 3행9자, 뒷면에는 10행31자, 오른쪽 옆면에는 4행 31자, 왼쪽 옆면에는 3행24자가 들어 있다. 머문은 최흥(崔興)이 짓고, 한이(漢羅)이 쓴 것으로 칠종 6년(1855)에 세워졌다. 비몸받침(75×55cm)에는 아무런 무늬도 조각되어 있지 않다.

상석(가로 127.5cm, 세로 84cm, 두께 42cm)의 만림으로는 곁방석과 북놀이 놓여져 있다. 혼유석과 더불어 향로석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말우주의 조는 태어(泰興)이고 부는 효민(孝民)이며 오는 양천이씨(陽川許氏) 신(信)의 따님이다. 비몸에 있는 말우주의 세적이는 다음과 같다.

정인년(1770, 영조 46년) 태어나다.

기유년(1789, 정조 13년) 의과에 합격, 태의원 참봉

임술년(1802, 순조 2년) 율령대부, 승주부 첨지

기사년(1809, 순조 9년) 가선대부, 승주부 동지사

을해년(1815, 순조 15년) 별하기다(4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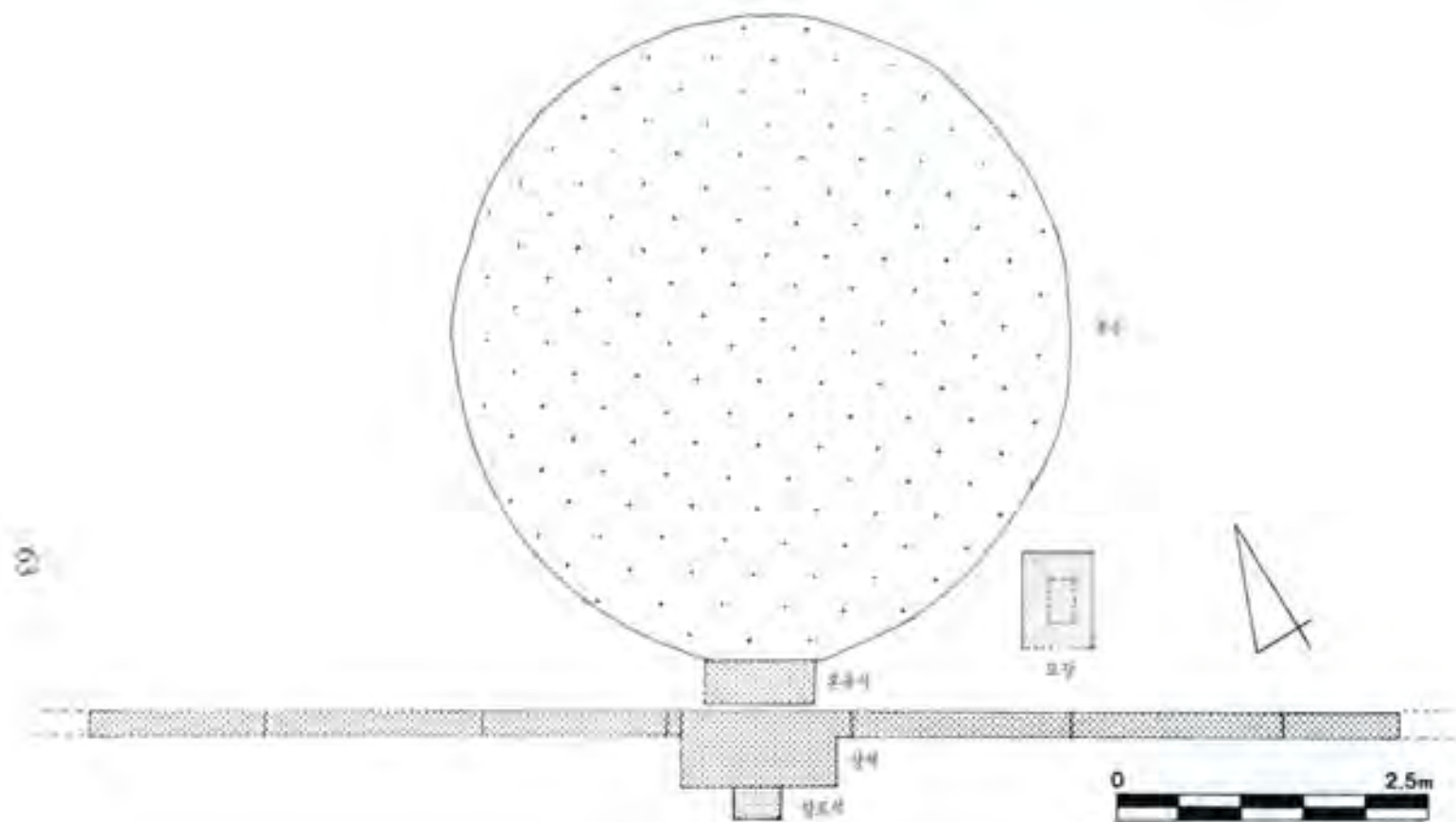


그림 5. 방우주 무덤의 봉분과 석을 배치





사진 19. 방우주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 20. 방우주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사진21. 방우주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상석과 혼유석(아래)

嘉義大夫同知中樞府  
事方公諱禹疇之墓  
貞夫人天安李氏祔右

탑본 11. 방우주 무덤의 비석 앞면







7) 윤씨(尹氏, 1524~1682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2리(10-3필아)

현재 이 무덤 일대에는 벌초를 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따라서 무덤의 구조와 형식을 정확하게 관찰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윤씨의 무덤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인 해좌사향(亥坐巳向)으로 들어앉았다. 이곳에는 2개의 봉분이 있는데, 왼쪽에는 유태와 그의 첫째부인 완산이씨(完山李氏)가 합장되었고, 오른쪽으로는 둘째부인 전주류씨(全州柳氏)의 것이 홀로 있다. 이 무덤에는 비석, 혼유석, 상석, 향로석 등과 함께 꽃인석 하나가 남아 있다. 그러나 망주석은 보이지 않는다.



지도 8. 윤씨 무덤의 위치(1:5,000)

비석의 크기는 길이 147cm, 너비 59.5cm, 두께 24.5cm로서 영조 48년(1772, 임진년)에 세워졌다. 새면에 새겨져 있는 비문은 앞면에 3행8자, 뒷면에 11행34자, 옆면에 4행34자가 쓰여졌다. 비몸받침은 가로 102cm, 너비 70cm이다.

상석(가로 132cm, 세로 75cm, 두께 28cm)의 밑받침은 결방석과 2개의 복돌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각 복돌의 앞면에는 물고기 머리[魚頭]가 하나씩 조각되어 있었다.

문인석은 본래 2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왼쪽에 있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관모는 얼굴의 길이보다 낮게 표현되어 있고, 턱끝과 볼 사이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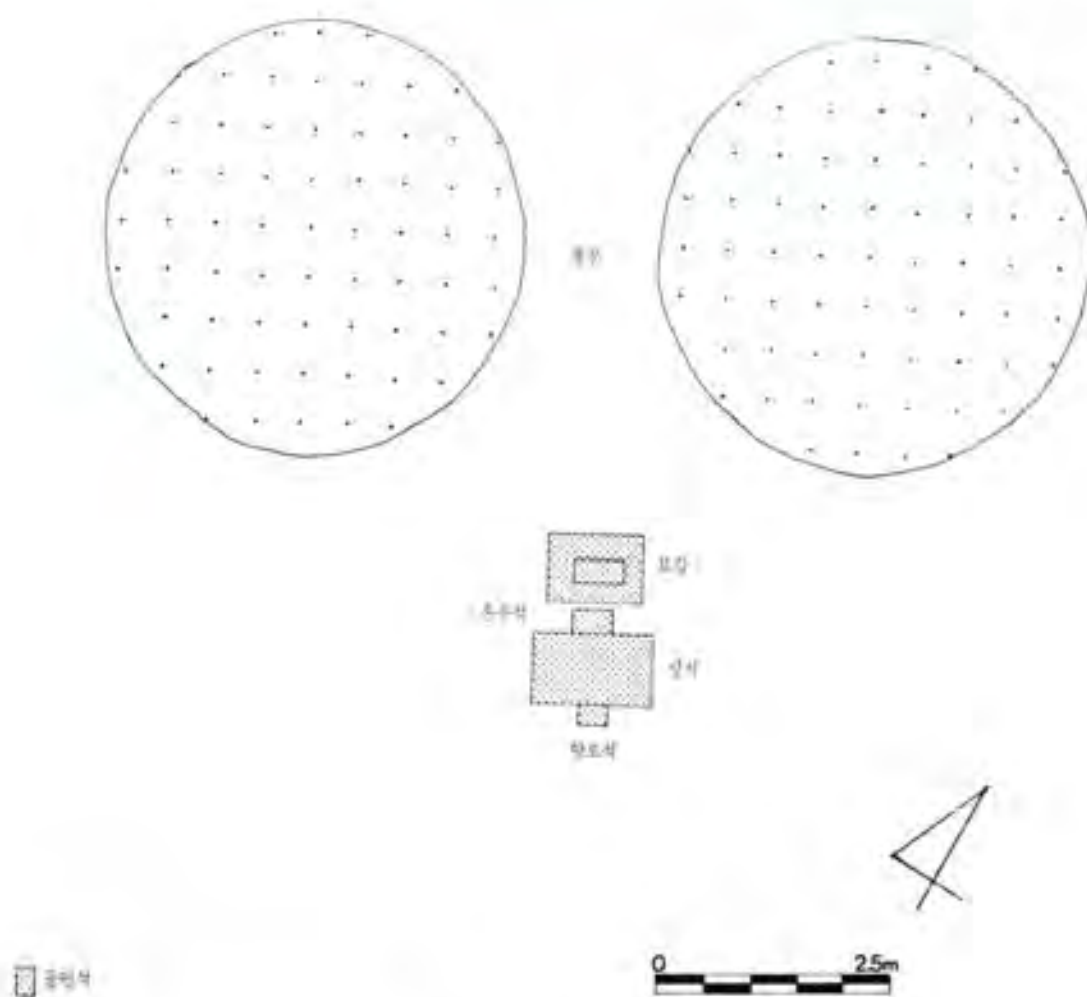


그림 7. 고대 무덤의 형태와 석물 배치



사진22. 윤타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23. 문타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사진 24. 율타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상석과 혼유석(아래)



사진 25. 율타 부림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淑人晉州柳氏之墓  
署別檢中訓大夫司圃  
署別檢中訓大夫司圃  
淑人完山李氏合祔墓

답본 13. 윤타 무덤의 비석 앞면

我曹王考別檢公不傳之族在萬陽郡宋青里已而康寧李氏初其和山連而國故再室  
 柳神人後沒嗣子左公以肅宗壬戌九月十五日沒今近八十子先人墓石歲建表  
 未就曾孫得觀謹休夫大父所擬道事嘉唐柳公柳書識表陰曰公諱端字內實海平尹  
 氏始祖前朝司空君正至我柳陵時諱根壽典文衡封海平府院君諱文貞諱文事  
 諱國泰世懷月汀先生其事乎微號霜浦賢而早世贈吏曹參判以諱宗之為後官太  
 丘府使號白蓮即公考也姓安東朴氏同知益中女公生于天啓甲子八月九日大業仁  
 善內行克備承順親心事無自專杜門對姪史其治舉業謝贈主理致連舉不中公不  
 介意憂湖明跡未來辭名堂曰嚱其中常題壁書云茅屋青山後漁舟願水前寒  
 風門裏客嘗獨白雲邊人或傳稱公與金谷雲壽增具陽谷斗室諸公為同甲會兵公如  
 公為村制授領運所監限公年過強仕者六無何罷領運置散于後十年復授司圖署  
 別檢任滿送而第六遠以無終壽五十九奉旨愼公景尹亦公同契為公定山與其地也  
 孝洲人其考主簿故開孝宰大君後生三女歸進士李昌善余知鄭宗賓縣監中我柳氏  
 晉州大姓獻明昌文女未育子再從子聖昆亦三女無子子從子源是吾先人外孫曰泰  
 在相曰鄭壽春壽高監張壽松左尹曰申致孝孫增鄭錫悌金時愼都事洪胤源之入四  
 男二女皆親進士皆復得顯得享安宗歸李達源其增餘不盡錄永曆三壬辰七月口

圖本 14. 윤타 무덤의 비석 뒷면과 옆면





삽본 15. 윤타 무덤 벽돌의 물고기 머리 조각



# 8) 김신충(金信忠, 1625~1704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나두3리(산51-1임야)

이 원대에는 안동김씨(安東金氏) 문중의 무덤이 30여기 정도 널려 있다. 이들 무덤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김신충의 무덤이다. 이곳에는 김신충을 비롯하여 첫째 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 둘째부인 인동장씨(仁同張氏), 세째부인 순흥안씨(順興安氏)의 봉분이 북서서-남동동의 슬파진향(戌坐辰向)으로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무덤의 위쪽으로는 소나무숲이 있다.

이 무덤은 비석, 상석, 향로석, 솟인석, 망주석을 갖추고 있다. 비석은 김신충의 장녀로서



지도 9. 김신충 무덤의 위치(1:5,000)

인동장씨의 초생이었던 김상궁(金尙宮)에 의하여 숙종 45년(1719)에 세워졌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가 108cm, 너비가 49.5cm, 두께가 15.5cm이다. 바름받침(91.5×47cm)의 둘레에는 열꽃무늬가 돌아가며 새겨져 있다. 비문의 앞면에는 1행 16자, 뒷면에는 8행 36자가 들어 있다.

상석(가로 133cm, 세로 77cm, 두께 31.5cm)과 상석받침은 그 규모와 형태가 서로 비슷하다. 상석의 원면으로는 3개 정도의 깎임이 남아 있다.

받주석에는 구름무늬와 함께 일의가 표현되어 있는데, 왼쪽 것에는 내려가는 다람쥐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 것에는 올라가는 다람쥐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문인석의 높이는 81cm로서 작은 편에 속한다. 편보와 얼굴의 높이가 같아 인형감을 주고 있으며, 턱끝과 볼 사이는 떨어져 있다. 손을 잡은 손의 모습은 두 문인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왼쪽의 것은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 것은 왼손이 오른손을 감싼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앞쪽 어깨단은 곧은 선으로 마감되었고 그 아래 양옆쪽으로 실이 조각되었다.

김인종의 증조는 옥수(沃守), 조는 양복(襄福), 부는 불남(佛男)이다. 김인종은 인조 8년(1625)에 태어나 숙종 30년(1704)까지 장수(80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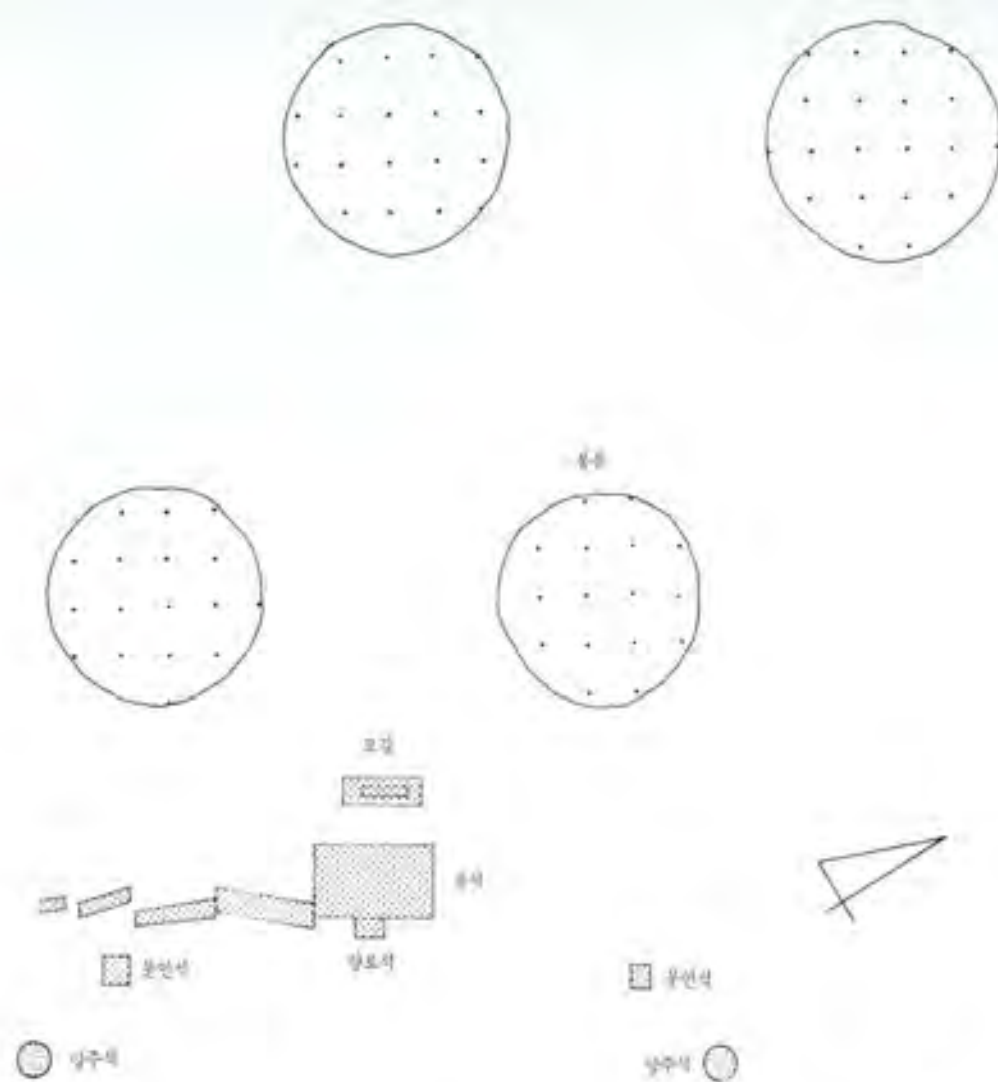


그림 8. 김신총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사진 26. 김신충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27. 김신충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사진28. 김신충 무덤의 문인석과 망주석(위), 상석과 향로석(아래)



사진 29. 김신충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사진30. 김신충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탑본 16. 김신희 무덤의 비석 앞면



公姓金名信忠字執行系女宋曾祖韓敬字老微諱善夫妻祖諱王福訓諱金其妻諱李氏  
 衛將軍記號贈副總兵公海金氏副司果長壽之女公生於天啓二年四月初二日卒於  
 順治甲申八月二十二日享年八十歲子高陽字登山號健庵而之康初號居所方氏  
 公弟肥仁同張氏通政大夫敬厚之女生於丙申十一月十九日享年六十歲初二子  
 二子九卿女生三男二女二男夫女長高富次通復軍公高顯早死無後一子長金富  
 女金氏金氏金氏三女金氏後族孫二連之子重孫考顯復三配明氏初嫁金氏次  
 女生於甲午六月二十一日享年壽庚申四月十二日享年六十歲初二子金富  
 女生於丙辰戊辰九月二十日享年六十歲八月廿日長女尚宮三子

탑본 17. 김신충 무덤의 비석 뒷면



9) 김상궁(金尙宮, 1681~1739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마두3리(산51-1입야)

이 무덤은 김신충 무덤의 바로 아래쪽에 있다. 따라서 김상궁 무덤에 딸린 사정은 따로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무덤을 쓴 좌향은 김신충과 같다. 김상궁의 비석은 그의 조카 중변(重玢)이 영조 16년(1740)에 세운 것이다.

북서서-남동동 방향의 숭좌전향(戌座辰向)으로 들어앉은 김상궁 무덤의 석물로는 비석, 혼유석, 상석, 향로석과 문헌석 및 망주석이 있는데, 이들 석물의 배치 방향은 김신충 무덤의 것과 같다. 비석은 높이 120cm, 너비 49cm, 두께 18.5cm로서 이 비석의 받침돌(97



지도 10. 김상궁 무덤의 위치(1:5,000)

×59cm)에는 무늬가 없다. 비문은 손자사위 고수훈(高守訓)이 짓고, 다석중(羅緝重)이 썼으며, 앞면에는 1행8자 그리고 뒷면에는 11행33자가 들어 있다.

상석(가로 122cm, 세로 81cm, 두께 41.5cm)과 상석받침은 생김새와 크기가 비슷한데, 상석받침과 향로석은 하나의 돌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상석의 양쪽으로는 댕돌이 놓여져 있었다.

김실충 무덤에서와 같이 문인석은 크기가 작았다. 관모와 얼굴 높이의 비율이 같았으며, 흉의 형태와 흉을 잡은 손의 모습이 김한충의 경우와 매우 닮은 것으로 나타난다. 망주석에도 무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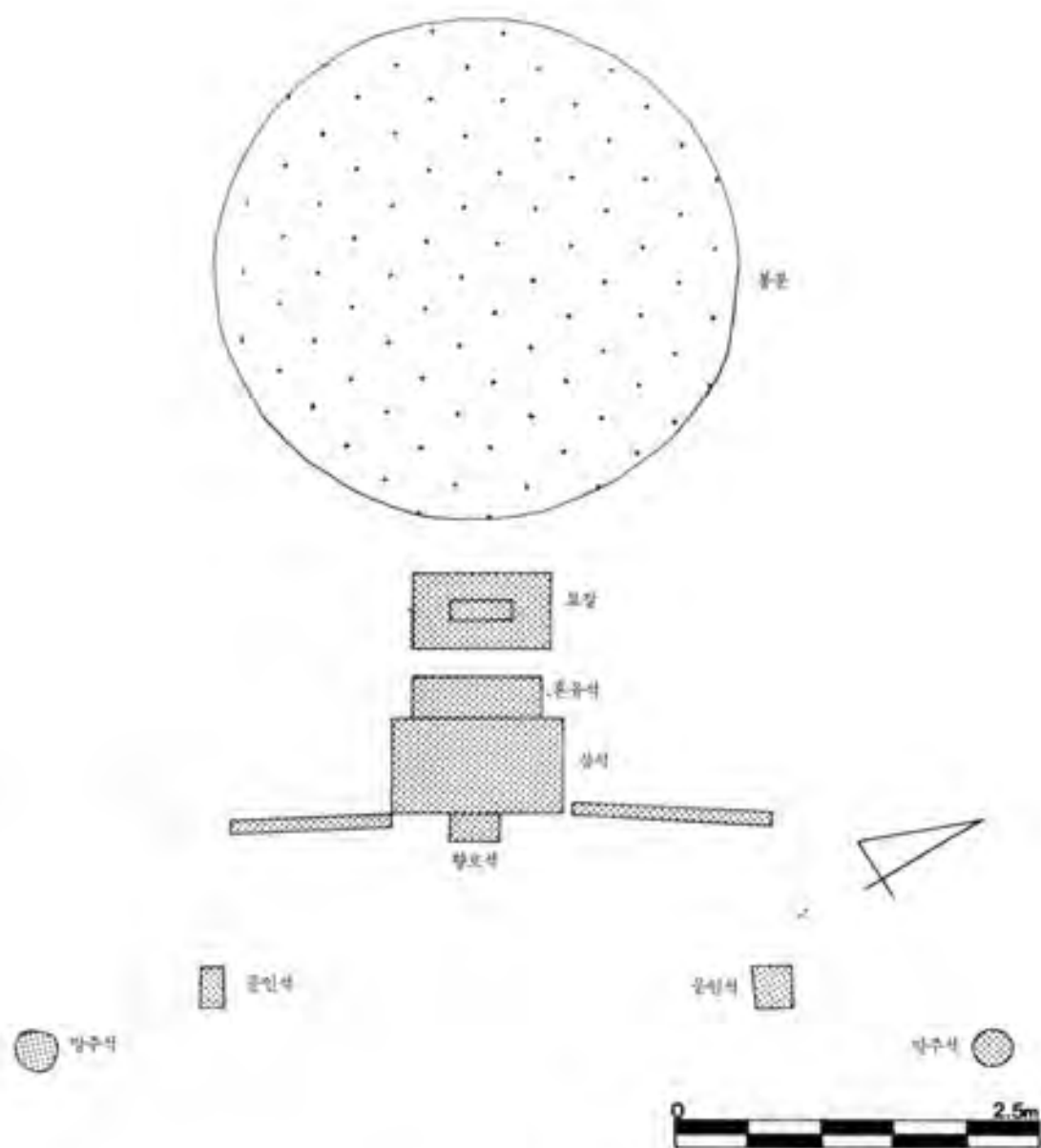


그림 9. 김상궁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사진31. 김상궁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32. 김상궁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사진33. 김상궁 무덤의 문인석과 망주석(위), 상석과 향로석(아래)



사진 34. 김상궁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사진35. 김상궁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탑본 18. 김상궁 무덤의 비석 앞면





함몰 19. 김상궁 무덤의 비석 뒷면



10) 김용(金龍, ?~1712년) 무덤

곳 :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마두3리(산51-1임야)

합동김씨 용(龍)의 무덤 규모는 김진중이나 김상궁의 것에 비하여 크지 못하다. 따라서 봉분을 비롯하여 비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 등의 석물은 모두 작은 편이다. 무덤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인 해좌사향(亥坐巳向)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정부인 영천연씨(貞夫人 永川 延氏)가 합장되었다.

비석은 높이 81cm, 너비 42cm, 두께 15cm이며 앞면에는 3행9자, 뒷면에는 9행30자의 글이 새겨져 있다. 비몸받침(66×38cm)의 둘레에는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상석(127



지도 11. 김용 무덤의 위치(1:5,000)

×78cm)의 아랫부분은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문인적인 작은 편이며, 매우 두박스런 느낌을 준다.

정종 1년(1721)에 비를 세웠으나 깨어져서 순조 2년(1908)에 다시 세웠다. 비문은 7세손 장수(肱秀)가 짓고, 장삼(鼎三)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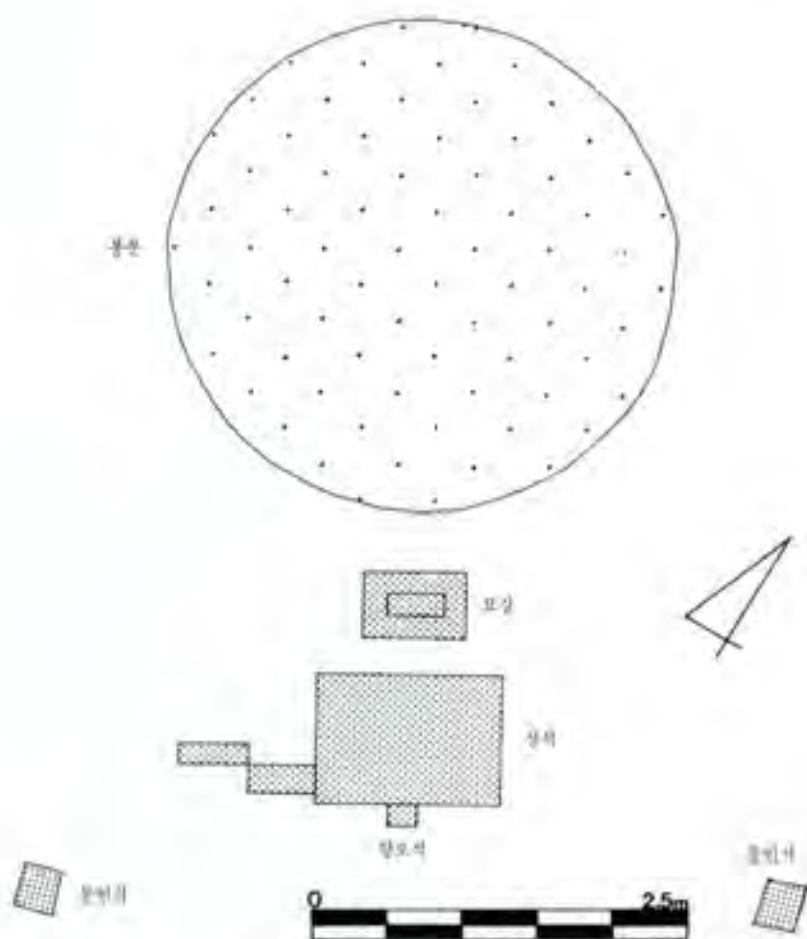


그림 10. 김용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사진 36. 김용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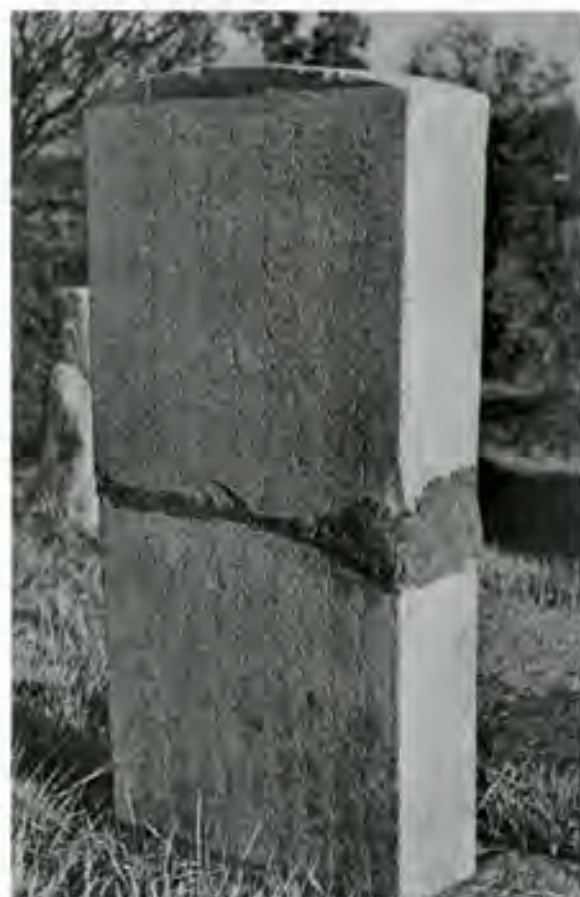


사진 37. 김용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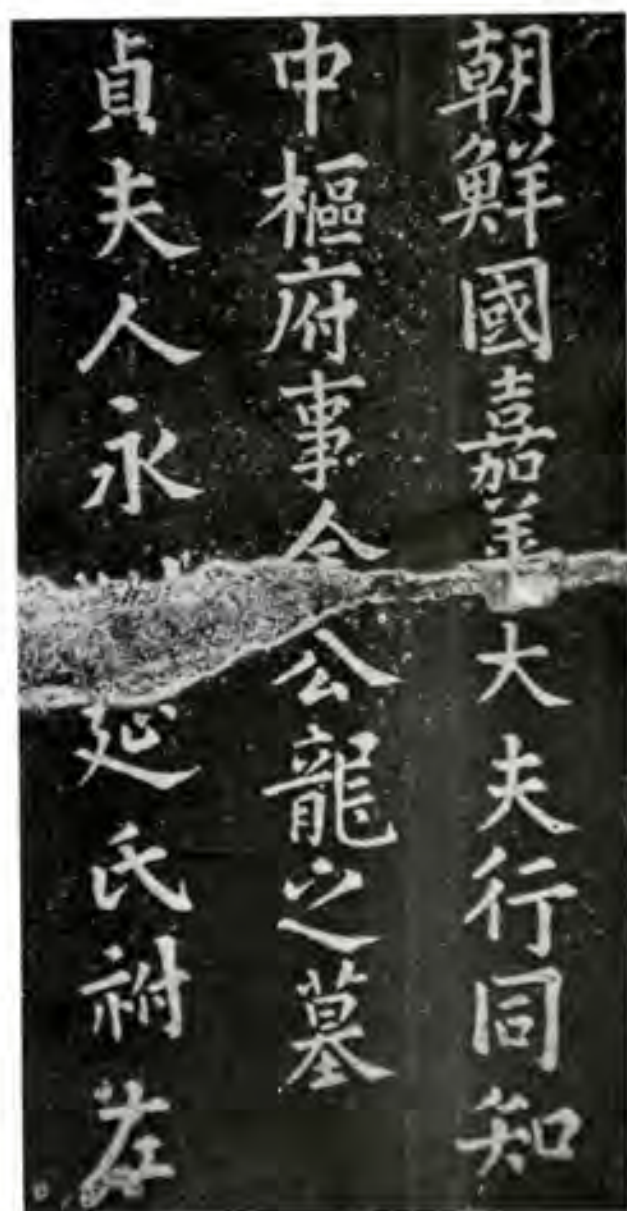




사진38. 김홍 무덤의 왼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사진39. 김용 무덤의 오른쪽 문인석(앞면, 옆면, 뒷면)



답본 20. 김홍 무덤의 비석 앞면

皇七世祖考嘉善大夫行同  
 莫子高陽中面三牌寓坐已向  
 年決傷而壽欲修改未遑遂  
 八十六年戊申歲七世孫鼎秀  
 七世祖考嘉善公生四男一女  
 次通政諱禮順死育次諱禮普  
 金丰三綿連子孫並不錄姑俟  
 戊申三月二日丙子不肖  
 世孫資以惠鼎考泣血謹識  
 出身鼎三謹書  
 府事公諱龍以天年卒逝  
 表康熙辛丑三月堅立中  
 光二十八年則粵自定後百  
 二世派并依舊本畧記于左  
 通政諱禮賢生二子二子生子書  
 子建次諱禮信生子二子生子書  
 之君子云

답본 21. 김윤 무덤의 비석 뒷면



# 11) 정형복(鄭亨復, 1686~1769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장항2리(산30)

이 일대에는 정형복과 그의 아들 정일상(鄭一祥) 그리고 정일상의 둘째부인인 정송실씨(貞松沈氏)의 무덤이 각기 위치를 달리하며 자리잡고 있다. 정형복 무덤의 서쪽으로는 정일상의 무덤이 있고, 정형복 무덤의 남쪽 방향으로 정송실씨의 무덤이 쓰여졌으며, 정송실씨 무덤의 오른쪽 아래 지점에 정형복의 묘갈(墓碣)이 세워져 있다.

정형복의 묘갈은 정조 13년(1789)에 세워진 것으로 무전각 자물(가로 36cm, 세로 25cm, 높이 48cm)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비몸의 4면에 첩첩 글이 새겨져 있다. 비몸의 뒷부분에



지도 12. 정형복 무덤의 위치(1:5,000)



는 신도비(神道碑)의 형식을 빌어 두정(頭頸)으로 세로(頸體)가 각편을 잡아가며 4자씩 새겨져 있다. 각편에 11행51자, 3면이 11행51자, 4면이 11행53자로 되어 있다. 비문은 존경(尊敬)이 짓고, 일상(一樣)이 썼는데, 두전(頭顚)만은 존재(存大)가 썼다.

북쪽동-남남서 방향의 측좌미향(丑坐未向)으로 들어앉은 이 무덤에는 비석, 존유사, 상석, 향로석, 당석, 망주석이 있다. 상석의 양끝으로는 사성석을 형하여 넷둘이 놓여져 있다. 무덤에는 3개의 봉분이 있는데 앞쪽에서 볼 때, 가운데 것은 집현부, 왼쪽 것은 한헌(한주이씨(全州李氏)), 오른쪽 것은 후위인 어흥민씨(羅興閔氏)의 것이다. 이 무덤의 비석은 우원각지붕 모양의 비각(가로 76cm, 세로 52cm, 높이 25cm)이 있다. 비몸은 높이 130cm, 너비 50cm, 두께 22.5cm로서 1면에는 3행9자, 2면에는 2행12자, 3면에는 12행40자, 4면에는 4행42자의 글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파평윤씨(坡平尹氏) 봉오(鳳五)가 짓고, 영조 31년(1755)에 쓰여졌다. 비석은 정조 13년(1789)에 세워졌다.

상석(가로 149.5cm, 세로 90cm, 높이 45cm)의 밑받침은 북돌과 결방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향로석의 뒤쪽 부분이 상석의 앞쪽 가운데를 받쳐주게끔 만들어졌다. 각각의 북돌에는 고리 모양이 3개씩 새겨져 있다. 향로석과 망주석에는 부의가 없다.

비몸에 들어 있는 정형부의 해적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생일년(1686, 숙종 12년) 아버지가 강진으로 귀향했을 때 태어나다.

무신년(1728, 영조 4년) 강원도사, 사서, 병조첨방, 지평

계축년(1733, 영조 9년) 수한교리

무오년(1738, 영조 14년) 동래부사

경신년(1740, 영조 16년) 강원감사

갑자년(1744, 영조 20년) 전라감사

정묘년(1747, 영조 23년) 송지, 공조참의

무진년(1748, 영조 24년) 동지부사, 형조 호조참판

갑술년(1754, 영조 30년) 형조판서, 경연동지사

- 을해년(1755, 영조 31년) 기사에 들다, 강화유수
- 병자년(1756, 영조 32년) 정헌대부, 형조판서, 대사헌
- 기축년(1769, 영조 45년) 돌아가다(84살).





사진40. 정향복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 41. 성향북 묘갈의 뒷면



사진 42. 성향북 묘갈의 옆면





사진43. 청령북 무덤의 비석 앞면과 옆면



사진44. 정형복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망주석과 양석(아래)



답본 22. 정형복 무덤의 묘갈 1·2면





답본 23. 정형복 무덤의 묘갈3·4면

後夫人驪興閔氏祔左  
 朝鮮國耆堂鄭亨復墓  
 前夫人全州李氏祔右

탑본 24. 정형복 무덤의 비석 앞면





## 12) 정일상(鄭一祥, 1721~1792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장항2리(산35)

이 무덤은 동-서방향의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자리하고, 첫째부인인 연인이씨(延仁李氏)와 둘째부인인 광주이씨(廣州李氏)가 합장되어 있다. 정일상의 둘째부인이었던 칠송임씨(齊松沈氏)는 이곳에 함께 모셔져 있지 않고, 정일복 무덤의 남쪽 아래에 홀로 자리하고 있다.

정일상의 무덤에는 비석, 혼유석, 상석, 방주석 등이 갖추어져 있다. 상석의 앞끝으로 사성쪽을 향하여 댓돌이 놓여져 있었다.



지도 13. 정일상 무덤의 위치(1:5,000)

정조 16년(1792)에 세워진 비석은 북쪽 앞쪽이 아닌 서성쪽에 치우쳐 있으며, 표재는 남쪽을 향하였다. 비몸(높이 159cm, 너비 59cm, 두께 28cm)의 비각(가로 108cm, 세로 76cm, 높이 40cm)은 무전각지붕을 하고 있으며, 비몸받침(가로 111cm, 세로 78cm)에는 무늬가 없다. 비문은 앞면에 3행9자, 뒷면에 12행53자, 옆면에 5행 53자가 들어 있다. 비문의 글은 총칭인 존전(存謙)이 보충해서 짓고, 글씨는 재종손 지수(致綬)가 썼다.

상석(가로 103cm, 세로 95cm, 두께 30.5cm)은 북돌과 전방석이 받치고 있으며, 정형복 무늬에서와 같이 향로석의 위쪽 부분에 상석의 앞쪽 부분이 없어 있다. 북돌은 북과 같은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양주석에는 무늬가 없다.

비문에 적혀 있는 정일상의 해적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축년(1721,乾隆 1년) 태어나다.

갑오년(1774, 영조 50년) 증광과거에 급제, 전시병과 급제, 홍문관 교리에 임명됨.

을미년(1775, 영조 51년) 동부승지, 호조참판, 비변자 당상

임인년(1782, 정조 6년) 북도 도관 사관아 됨.

갑진년(1784, 정조 8년) 승정대부, 옥당수관

정술년(1790, 정조 14년) 승복대부, 기로소에 들다.

임자년(1792, 정조 16년) 돌아가다(72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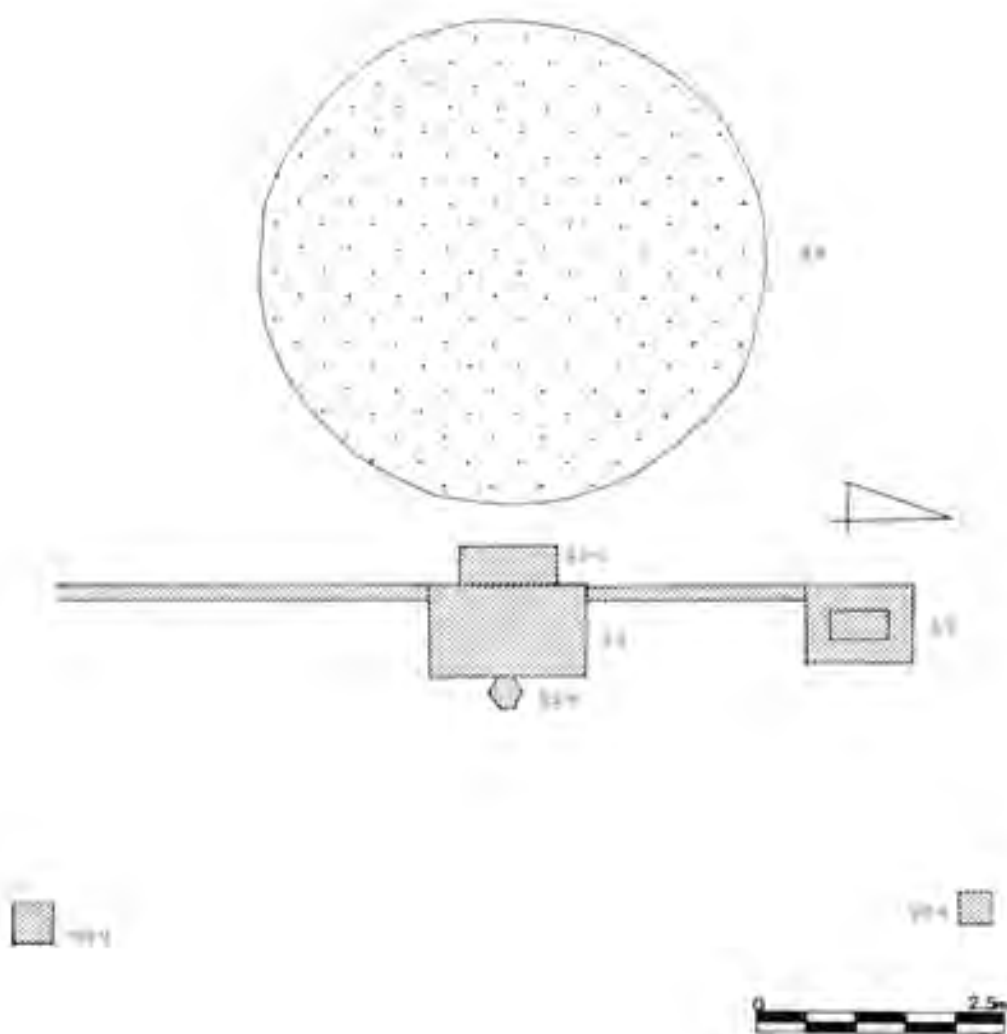


그림 12. 정일상 무덤의 불분과 석물 배치



사진45. 청일상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 46. 청명상 무덤의 비석 앞면과 옆면



사진 47. 청일상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상석과 혼유석(아래)



탑본 26. 정일상 무덤의 비석 앞면



탑본 27. 정일상 무덤의 비석 뒷면과 옆면



### 13) 청송심씨(靑松沈氏, ?~1790?년) 무덤

곳: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장항2리(한30)

청송심씨는 정일상의 후위로 정실부인으로 봉해졌다. 그의 무덤은 정일상의 무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쓰여졌고, 바로 위 북쪽으로는 정일상의 부(父)인 정형복의 무덤이 있다.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죽카미창(丑巽未向)으로 쓰여진 이 무덤에는 비석, 혼유석, 향석, 향로석, 망주석이 있다.

성조 14년(1790)에 세워진 비석은 봉분과 혼유석 사이에 있으며, 비몸(높이 131cm, 너비



지도 14. 청송심씨 무덤의 위치(1:5,000)



48.5cm, 두께 20.5cm) 위에는 비갓이 없다. 비몸받침의 가로는 98cm, 세로는 65cm, 두께는 23cm이다. 비석의 앞면에는 1행10자, 뒷면에는 7행22자가 새겨져 있다. 비문은 남편인 정일상이 짓고, 아들 존대(存大)가 썼다.

상석(가로 143cm, 세로 87cm, 두께 46cm)의 받침돌은 절방석과 북돌로 이루어져 있고, 향로석의 뒤쪽 부분이 상석의 앞쪽을 받치고 있다. 북돌에 새겨진 고리 모양의 조각과 더불어 상석의 고임 형식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정씨문중의 무덤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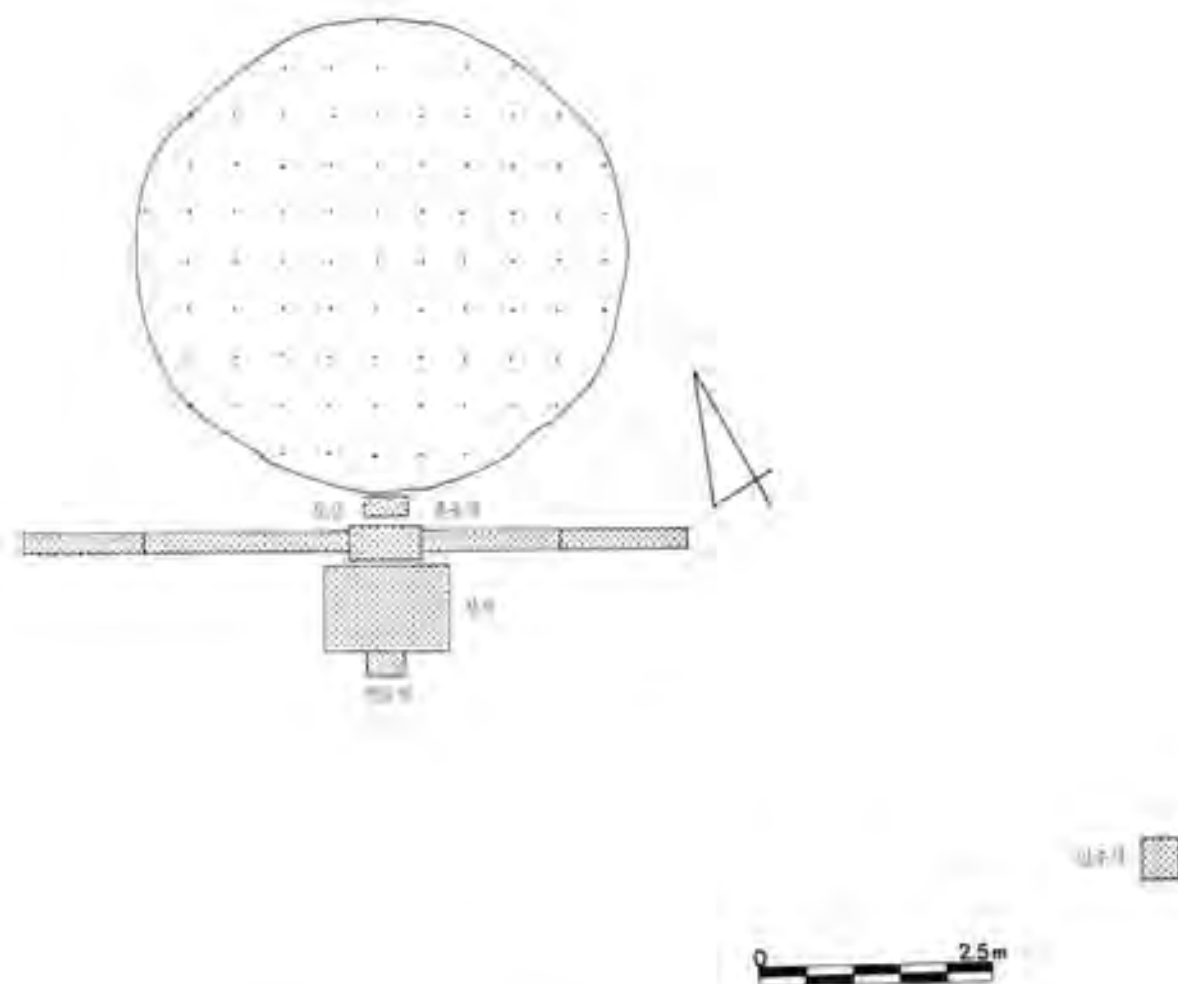


그림 13. 청송심씨 무덤의 봉분과 석물 배치



사진48. 청송심씨 무덤의 모습, 앞에서 본 모습(위)과 뒤에서 본 모습(아래)



사진 49. 청송심씨 무덤의 비석 앞면과 뒷면



사진50. 청송심씨 무덤의 상석과 향로석(위), 상석과 혼유석(아래)





탈본 28. 청송삼씨무덤의 비석 앞면

夫人姓沈氏其考諱錫升官合葬於此十七日  
 辛酉歲是年十月晦日之喪於先考封致寧府君  
 夫人同葬於余陞榮縣貳貳貳貳貳貳貳貳貳  
 滿堂此堂谷里而地令其地未克同葬不有自來  
 之墓也非此店畧畧其陰云  
 癸卯年元月三庚戌亦月且天崇政大夫并會封  
 妣一祥述懷子存大孝

拓本 29. 청송심씨 무덤의 비석 뒷면

## (2) 성터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에 자리한 성저마을에 성터가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이 책에서는 사포면(蛇浦面) 들판 가운데에 고토성(古土城)의 남은 터가 있다고 전한다. 오늘날의 송포면(松浦面)이 사포면과 송산면(松山面)을 하나로 일컫는 지명으로 성저(城底)마을이 옛성터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곳에 사는 주민 가운데 일부는 이 마을에 성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들은 바 있다고 말한다. 고구려의 성으로 전해오고 있어 이곳은 시굴을 하여 확인하고, 확실



사진 51. 멀리에서 본 성터의 모습.

할 때는 보존과 복원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기간 동안에는 이곳에 성터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이며, 군부대가 있고 하여 성터의 정확한 위치와 관련유물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식절차에 의한 이 일대의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이곳에 사는 농민들 모두가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강한 저항감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이 마을에서의 조사작업을 자유롭게 진행하기 어렵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있으며 서해안 지역의 확보와 방위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가늠되므로 이 성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요청된다.

### 3. 유적의 정비와 보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일산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의 대부분은 험무럽이며, 고구려 시대로 전해오는 성터가 한군데 있고,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의 발견 가능성이 엿보이는 곳만중이 일부 포함된다. 지표조사에 따른 이들 유적의 정비와 보존대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미는 장소자리의 수일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될 수 있는 사항임을 뜻한다. 아울러 표에서 제외된 많은 부덩이 1:12000 의도에 표시되어 있음을 덧붙인다. 요컨대, 이들 부덩으로부터 수의, 지서, 명기 등 여러 종류의 유물과 함께 형식의 묘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각 부덩이 정비될 때에는 반드시 고고학 방법에 의한 조사작업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유적에 대한 종합의견)

구분	조토 면적	유적 이름	시대	유적 위치	현상 및 수량								비고
					분문	요강	혼유석	상석	탈로석	문헌석	양주석	상석	
가. 옛부엌	1	이석구 무덤	조선	백석4리 (산43-3일아)	1	1	1	1	1	0	2	0	이전복원
	2	이석구 무덤	조선	백석4리 (산43-3일아)	1	1	0	1	1	0	2	2	-
	3	최영 무덤	조선	백석3리 (산30-5일아)	2	1	0	2	1	2	0	0	-
	4	방원자 무덤	조선	백석1리 (11-4일아)	1	1	0	1	1	2	2	0	-
	5	방태아 무덤	조선	백석1리 (11-4일아)	1	1	0	1	1	2	2	0	-
	6	방우주 무덤	조선	백석1리 (11-4일아)	1	1	1	1	1	0	0	0	-
	7	윤하 무덤	조선	백석2리 (산10-3일아)	2	1	1	1	1	1	0	0	-
	8	김선충 무덤	조선	아두3리 (산51-1일아)	1	1	0	1	1	2	2	0	-
	9	김상로 무덤	조선	아두3리 (산51-1일아)	1	1	1	1	1	2	2	0	-
	10	김종 무덤	조선	아두3리 (산51-1일아)	1	1	0	1	1	2	0	0	-
	11	김형복 무덤	조선	장항2리 (산30)	3	2	1	1	1	0	2	2	-
	12	김일삼 무덤	조선	장항2리 (산35)	1	1	1	1	1	0	2	0	-
	13	최승일씨 무덤	조선	장항2리 (산30)	1	1	1	1	1	0	2	0	-
나. 성터	1	성터	고구려 (?)	대화4리 (일차리)	124칸, 125칸, 128칸, 129칸 (약 2,000평)								-
다. 묘지	1	묘지	신라	대화4리 (일차리)	275칸, 276칸, 277칸, 334칸 (약 2,000평)								-
	2	묘지	신라	대화4리 (일차리)	389칸 (약 1,000평)								-
	3	묘지	신라	주영리	약 1,000평								-

## 일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89년 12월 6일 찍음

1989년 12월 9일 피냄

엮은곳 : 한국선사문화연구소

단국대 중앙박물관

찍은곳 : 백 산(서울, 926-8533)

